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사유를 인용하는
'싶다' 구문에 대한 연구

202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조 윤 진

사유를 인용하는
'싶다' 구문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문 숙 영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조 윤 진

조윤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4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사유를 인용하는 ‘싶다’ 구문에 대한 연구

조 윤 진

본고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의 ‘싶다’를 인용형용사로 자리매김하고, ‘싶다’와 ‘싶다’가 형성하는 인용구문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싶다’는 대체로 보조용언이나 양태용언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싶다’는 사유를 나타내는 문장이면 어떠한 형식이더라도 보문으로 내포할 수 있으며, ‘싶다’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징은 인용구문에 더 부합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유 인용의 ‘싶다’ 구문을 수립하고 해당 구문의 특징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싶다’ 구문을 보조용언 구문과 양태용언 구문과 비교하고 사유 인용구문으로서의 ‘싶다’ 구문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를 통해 ‘싶다’ 구문이 보조용언 구문과 양태용언 구문과 통사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발화 인용과 달리 사유 인용은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 피인용문이 사용되는데, ‘싶다’ 또한 그러함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싶다’ 구문의 특징을 크게 직접인용 구문적 특징, 간접인용 구문적 특징, 제3의 인용구문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직접인용 구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피인용문에 다양한 문말어미가 사용되고, 화시소가 유지되며, 조각문 및 표현소가 사용되고, 억양과 휴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간접인용 구문적 성격에는 화시소가 전이되며, 간접인용 어미 ‘-다’가 사용된다는 것이 있다. 제3의 인용구문적 성격에는 인용표지가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있고, 이것은 ‘싶다’가 포괄 인용용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4장에서는 인용형용사 ‘싶다’의 어휘·의미적 특징과 인용표지 상당 기능을 살펴보았다. ‘싶다’는 인용형용사로 피인용문을 항상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싶다’는 인지 단계 중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사유의 의미를 가지며, 사유가 가지는 불확실성을 표출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싶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면 특정 환경에서 인용표지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5장에서는 ‘보다’ 구문과 ‘하다’ 구문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보다’ 구문은 사유 전반을 나타낼 수 있는 ‘싶다’ 구문과 달리 [추측]과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화된 양태 표현이다. ‘하다’ 구문은 ‘싶다’ 구문과 동일하게 사유 인용구문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 ‘하다’는 ‘싶다’와 달리 품사 상 동사이고, 현재시제로 나타날 때 피인용문 문말어미에 제약이 있으며, 선택 의문문을 피인용문에 허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주요어 : ‘싶다’, 싶다 구문, 인용구문, 사유 인용구문, 사유 구문, 인용
형용사, 양태

학 번 : 2022-23968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대상	1
1.2. 선행연구	4
1.3. 논의의 구성	7
2. ‘싶다’ 구문의 수립	9
2.1. 보조용언 구문과의 차이	9
2.1.1. 통사적 의존성	10
2.1.2. 대용형에 의한 비대치성	11
2.1.3. 공백화 불가능성	12
2.2. 양태용언 구문과의 차이	13
2.2.1. 양태 담지자의 통사적 실현 여부	16
2.2.2. 설명의문문 형식과의 결합 여부	18
2.3. 사유 인용구문으로서의 ‘싶다’ 구문	19
2.3.1. 인용구문의 개념과 특징	19
2.3.2. 사유 인용구문의 개념과 특징	24
2.3.3. 사유를 인용하는 ‘싶다’ 구문	29
3. ‘싶다’ 구문의 인용구문적 특징	32
3.1. 직접인용 구문적 특징	32
3.1.1. 다양한 피인용문 문말어미의 사용	32
3.1.2. 화시소의 유지	39
3.1.3. 조각문 및 표현소의 사용	41
3.1.4. 억양과 휴지	44
3.2. 간접인용 구문적 특징	46

3.2.1. 화시소의 전이	46
3.2.2. 간접인용 어미 ‘-다’의 사용	49
3.3. 제3의 인용구문적 특징: 인용표지 ‘Ø’의 사용	51
4. ‘싶다’의 어휘·의미적 특징과 특수 기능	57
4.1. ‘싶다’의 어휘적 특징	57
4.1.1. ‘싶다’의 품사	57
4.1.2. ‘싶다’의 논항 구조	62
4.2. ‘싶다’의 의미적 특징	66
4.2.1. 선행 연구	66
4.2.2. 사유의 불확실성 표출	67
4.3. 관형사절에서의 특수 기능	71
5. ‘보다’ 구문과 ‘하다’ 구문과의 비교	76
5.1. ‘보다’ 구문과의 비교	77
5.1.1. ‘보다’ 구문과 ‘싶다’ 구문의 통사적 차이	77
5.1.2. ‘보다’ 구문과 ‘싶다’ 구문의 의미적 차이	85
5.2. ‘하다’ 구문과의 비교	87
5.2.1. ‘하다’ 구문과 ‘싶다’ 구문의 통사적 차이	87
5.2.2. ‘하다’ 구문과 ‘싶다’ 구문의 의미적 차이	93
6. 결론	96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 말뭉치	4
[표 2] 정혜선(2010: 180)의 시기별 ‘싫다’의 분포	7
[표 3] 엄소영·이선웅(2020)에서 제시한 ‘싫다’의 양태 의미	15
[표 4]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싫다’의 피인용문 종결어미 목록	32
[표 5] ‘싫다’의 피인용문 문말어미 목록	33
[표 6] ‘싫다’의 피인용문 문말어미와 전체 문말어미의 비율	34
[표 7] ‘싫다’에 결합하는 어말어미 상위 10위 목록	71
[표 8] ‘보다’ 구문과 ‘싫다’ 구문에 결합하는 간접의문어미의 비율 ..	77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이 글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에서 사유를 인용하는 ‘싶다’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 다른 유사 표현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연구하는 데에 있다.¹⁾

‘싶다’는 용언이나 ‘듯, 성’ 등의 의존명사에 후행하여 앞선 선행성분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조용언으로 알려져 있다.²⁾

- (1) ㄱ. 나는 밥을 먹고 싶다.
- ㄴ. 공원에 사람이 많을 듯싶다.
- ㄷ. 그가 그걸 바랄 성싶으냐?

그러나 ‘싶다’는 종결어미로 끝나는 용언에 후행할 수도 있어 특수한 보조용언 구문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엄정호(1990)에서는 이러한 ‘싶다’를 ‘종결어미와 보조용언의 통합 구문’을 형성하는 보조용언이라는 의미로 ‘SEA(sentence ending auxiliary)’라고 칭하였고, SEA가 형성하는 구문을 ‘SEA 구문’이라고 하였다.

- (2) ㄱ. 철수가 이미 학교에 갔다 싶다.
- ㄴ. 철수가 이미 학교에 갔는가 싶다.
- ㄷ. 철수가 오늘 학교에 갔을까 싶다.

1) 본고에서는 용언의 경우 ‘-다’가 결합한 기본형을 대표형으로 삼고, 어미의 경우 이형태가 존재할 때 매개모음이 결합하지 않은 음성모음형을 대표형으로 삼는다.
2)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연세한국어사전》 등의 사전류에서는 ‘듯싶다’, ‘성싶다’를 하나의 단어로 등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싶다’를 접미사로 처리하기도 한다.

(2)와 같은 ‘싶다’ 구문은 (1)과 달리 ‘싶다’가 없이 독립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3) ㄱ. *나는 밥을 먹고
- ㄴ. *그가 그걸 바랄 성
- ㄷ. 철수가 이미 학교에 갔다.
- ㄹ. 철수가 오늘 학교에 갔을까?

이러한 ‘싶다’ 구문에서는 선행 용언과 ‘싶다’의 주어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4ㄱ)에서 ‘먹다’와 ‘싶다’의 주어는 별개로 설정할 수 없지만, (4ㄴ)에서는 ‘싶다’와 ‘가다’의 주어는 각각 ‘나’와 ‘철수’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 (4) ㄱ. 나는 {∅/*영희가} 밥을 먹고 싶다.
- ㄴ. 나는 철수가 이미 학교에 갔다 싶다.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어에서 ‘싶다’ 구문은 선행 용언에 결합하는 종결어미에 큰 제약이 없고, 선행 성분으로 용언이 아니라 부사어, 명사구 등 다양한 성분이 올 수 있다.

- (5) ㄱ. [이런 내용이 아닌데] 싶어서 얼른 댓글을 달았죠.
- ㄴ. [어우 꼴보기 싫어] 싶다가도 맘이 찡해지는 게 가족인가 봐요.
- ㄷ. 훈장을 받아봤자 드러내지 않을텐데 [굳이] 싶기도 해요.
- ㄹ. 네가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다가도 [대체 왜 우리에게...] 싶고 그래.

(5)에서 [] 안의 문장은 완전한 형식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Jespersen 1924: 307-308).³⁾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 나타날 수 있는 문장을 보문으

3) 문장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Bloomfield(1933)과 Lyons(1977)에서도 찾아볼 수 있

로 가지는 것은 인용 구문의 특징이다. (6)은 (5)의 [] 안의 문장이 인용동사 ‘말하다’의 피인용문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 (6) ㄱ. 철수는 저에게 “이런 내용이 아닌데”라고 말했어요.
- ㄴ. 영수는 “어우 꼴보기 싫어”라고 말했다.
- ㄷ. 미희는 ‘굳이?’라고 말했다.
- ㄹ. 영희는 “대체 왜 우리에게…”라고 말했다.

그러나 (6)과 다르게 (5)의 피인용문은 실제로 발화된 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어의 머릿속 생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발화의 인용이 아닌 사유의 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5)와 같은 ‘싫다’ 구문을 사유 인용구문으로 보고자 하며, 현대 한국어 구어를 중심으로 이들의 인용 구문적 특징을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발화의 인용에 비해 사유의 인용은 전형적인 인용으로 생각되지 않았다(신지연 1998: 118-119, 남기심 1971: 229-230, 이상복 1973: 131-132 등). 그러나 본고에서는 ‘싫다’ 구문을 통해 사유 인용구문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봄과 동시에 실제 구어에서 사유의 인용이 매우 빈번하고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유를 인용하는 ‘싫다’ 구문을 다루기 때문에 보조용언 구문인 ‘고 싶다’와 ‘듯싶다, 성싶다’는 제외한다. 따라서 이하 ‘싫다’ 구문은 이들을 제외한 구문을 지칭한다.

본고에서는 ‘싫다’ 구문이 현대 한국어에서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예문이나 통계를 제시할 때에는 구어 말뭉치를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본고에서 활용한 말뭉치는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이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 Bloomfield(1933: 170)과 Lyons(1977: 622)에서는 모두 단어로 된 형식도 문장으로 될 수 있으며, 문장은 특별한 문법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표1〉 연구 대상 말뭉치

자료명	내용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	약 1억 어절 규모의 방송, 강연 등의 공적 구어 자료, 드라마 대본 등의 준구어 자료로 구성된 구어 말뭉치
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말뭉치 2020, 2021	총 30개 주제를 대상으로 최소 두 명, 최대 네 명의 화자가 자유롭게 나누는 일상 대화로 구성된 말뭉치
온라인 게시 자료 말뭉치 2022	게시판, 누리 소통망 등에서 수집한 언어 자료로 구성된 말뭉치

또한 통계를 제시할 때에는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를 ‘Bareun’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형태소를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힌다.⁴⁾

1.2. 선행 연구

‘싶다’는 주로 보조용언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때 ‘싶다’의 의미는 선행 용언에 어미 ‘-고’나 ‘-었으면’이 결합하면 [희망]의 의미, 어미 ‘-ㄴ까, -ㄴ가, -나’ 등이 결합하면 [추측]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기술되었다(최현배 1937/1961, 서정수 1990, 고영근 1993 등). ‘싶다’가 보조용언으로 처리된 이유 중 하나는 ‘싶다’가 그 자체로 독립된 서술어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선행 용언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통사적 의존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보조용언 구문은 선행 용언에 연결어미가 결합하는 것과 달리, ‘싶다’ 구문의 선행 용언에 다양한 종결어미가 결합할 수 있고,

4) ‘Bareun’ 형태소 분석기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형태소 분석기이다. 99.6%의 형태소 품사 태깅 정확도를 보이며, 모호성 해소 성능 평가에서 여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https://bareun.ai/>)

‘싶다’의 선행 명제가 완형보문(完形補文)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에 특수한 보조용언 구문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권재일 1977, 엄정호 1990, 호광수 2003 등). 특히 엄정호(1990)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구문을 이끄는 용언을 ‘SEA’로 지칭하고, ‘싶다’와 함께 ‘보다’, ‘하다’를 SEA에 포함하였다. 이들은 모두 선행 용언의 어미가 종결어미로 종결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7) ㄱ. 철수는 학교에 갔나 싶다.
- ㄴ. 철수는 숙제를 다 했나 보다.
- ㄷ. 철수가 그 일을 하지 않았나 한다.

(엄정호 1990: 1)

한편, ‘싶다’를 보조용언 목록에서 제외하고 내포문을 요구하는 본용언으로 본 논의도 존재한다(손세모들 1996, 박재연 1999, 김건희 2008 등). 대표적으로 손세모들(1996: 90-91)에서는 보조용언 구문을 단문으로 한정하고, ‘싶다’ 구문은 복문이기 때문에 보조용언 구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는 ‘싶다’의 선행어미가 종결어미인 점, ‘싶다’가 ‘하다’나 ‘생각되다’나 ‘생각하다’ 등으로 대치될 수 있다는 점, ‘싶다’와 관련된 의미가 ‘싶다’가 아닌 선행 종결어미에 의해 표현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싶다’ 구문을 복문으로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추측]이나 [의도]⁵⁾ 등의 의미는 내포문 종결어미의 의미이지, ‘싶다’의 의미가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내일 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에서 읽히는 [추측]의 의미는 ‘내일 비가 오지 않을까?’만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추측]이나 [의도] 등의 의미가 ‘싶다’가 아닌 선행어미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논의들에서는 대부분 ‘싶다’가 ‘생각하다’류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손세모들(1996: 95), 이정택(1998), 임홍빈(2018), 박재연(1999) 등에

5) [의도]의 의미는 주로 ‘-ㄴ까 싶다’ 구성에서 논의되었다. [의도]는 [의향], [의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i. 오늘 피자를 먹을까 싶다.

서는 ‘싶다’의 의미를 ‘생각하다/생각되다’ 등으로 보았고, 김정아(1985)에서는 ‘싶다’의 중세 한국어형인 ‘식브다’를 ‘너지다’와 같은 사유 동사의 일종으로 보았다. 임동훈(2021: 74)에서는 ‘싶다’를 ‘어떤 생각이 들다’로 보았다.

한편, ‘싶다’를 내포문이 나타내는 명제에 양태를 더하는 양태용언으로 바라본 연구들도 있다. 김건희(2008)에서는 ‘싶다’가 [판단]의 양태를, 천성호(2020)에서는 [소극적 확신]의 양태를, 엄소영·이선웅(2022)에서는 종결어미에 따라 다양한 인식 양태나 행위 양태를 표현하는 양태용언이라고 보았다.

반면, 박재연(1999), 윤정원(2011), 박창영(2017)에서는 ‘싶다’가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 내적 사유’를 직접인용의 형식으로 내포한다고 보았다. 박재연(1999)에서는 이들을 인용구문으로 보는 이유로 내포문 종결어미에 다양한 어미가 사용될 수 있고, 내포문에 수행 억양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박한기(2009: 70, 각주 11)에서는 ‘싶다’의 보문에 재귀사 ‘자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항상 직접인용 구문만 내포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 (8) ㄱ. 영희는 “내가 그 일을 해도 되나?” 싶었다.
- ㄴ. 영희는 자기가 그 일을 해도 되나 싶었다.

‘싶다’는 중세 한국어에서는 ‘식브다, 시브다’ 등의 형태로 나타났고, 근대국어 시기에는 ‘시프다, 십브다, 싯브다’ 등 다양한 형태가 출현한다. 김정아(1985), 이영경(2005), 정혜선(2010), 안주호(2005) 등은 중세 및 근대국어에서 ‘싶다’를 다룬 연구들인데, 이들은 모두 ‘싶다’가 주어의 사유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중 김정아(1985: 285)에서는 ‘싶다’에 ‘-ㄴ가/고, -ㄹ가/고’ 등으로 종결되는 내포문의 형식이 인용의 일반적 방식과 일치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현대 한국어만큼 다양한 종결어미가 오지는 못하지만 ‘-ㄴ가/고, -ㄹ가/고’ 외에도 다양한 의문형과 평서형 종결어미가 올 수 있었다. 정혜선(2010: 180)에서 제시된 중세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의 ‘싶다’ 분포 중 종결어미와 통합되는 것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2> 정혜선(2010: 180)의 시기별 ‘싶다’의 분포

시기 ‘싶다’ 구문	중세국어	근대국어
의문형어미와 ‘싶다’ 통합 구문	‘-ㄴ가’계 어미 ‘-녀’계 어미 ‘-리’	‘-ㄴ가’계 어미 ‘-리’
감탄형어미와 ‘싶다’ 통합 구문	‘-도다’	‘-도다’ ‘-에라’
평서형어미와 ‘싶다’ 통합 구문		‘-다’

이렇듯 ‘싶다’의 지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이 중에는 이를 인용구문으로 본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 기존에 ‘싶다’를 보조용언으로 다루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하여 보조용언 구문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싶다’ 구문 자체의 인용구문적 특징이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인용구문 논의 속에서 ‘싶다’ 구문을 살펴보며 ‘싶다’ 구문이 가지는 직·간접인용 구문적 성격을 모두 다룰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싶다’가 가지는 특수한 통사·의미적 성격을 논의할 것이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싶다’ 구문을 수립한다. 먼저 2.1절과 2.2절에서는 ‘싶다’ 구문이 보조용언 구문과 양태용언 구문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후 2.3절에서는 인용구문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사유 인용과 발화 인용이 어떠한 점에서 같고 다른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싶다’ 구문이 인용구문임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싶다’ 구문의 인용구문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인용구문은 인용의 방식에 따라 크게 직접인용 구문과 간접인용 구문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각각의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3.1절은 ‘싶다’ 구문의 직접인용 구문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고, 3.2절은 ‘싶다’ 구문의 간접인용 구문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3.3절은 ‘싶다’ 구문이 가지는 직접인용 구문으로도, 간접인용 구문으로도 볼 수 없는 제3의 인용구문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포괄 인용용언으로서 ‘싶다’가 가지는 어휘·의미적 특징과 특수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4.1절에서는 ‘싶다’의 품사와 논항구조에 대해 다룰 것이다. 4.2절에서는 사유를 나타내는 형용사로서 ‘싶다’가 가지는 ‘불확실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는 ‘싶다’가 관형사절에서 가지는 인용표지 상당 기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SEA 구문으로서 ‘싶다’ 구문과 함께 다루어지는 ‘보다’ 구문과 ‘하다’ 구문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 구문과 ‘싶다’ 구문을 통사·의미적으로 비교할 것이다. 5.1절에서는 ‘보다’ 구문과의 통사·의미적 비교가, 5.2절에서는 ‘하다’ 구문과의 통사·의미적 비교가 수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전체적인 논의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2. ‘싶다’ 구문의 수립

2.1. 보조용언 구문과의 차이

보조용언은 일반적으로 혼자서 술어 역할을 할 수 없고, 선행하는 용언에 뜻을 더하는 역할만을 하는 용언이라고 정의된다. 최현배(1937/1961: 390-391, 526)에서는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를 각각 ‘도움 움직씨’, ‘도움 그림씨’라고 칭하며, 선행 용언 뒤에서 선행 용언의 의미를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보조용언 전반에 관한 연구인 이선웅(1995), 류시종(1995), 손세모돌(1996), 김영태(1997)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조용언의 통사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 특징들은 본용언은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별할 때 사용된다.

- (1) ㄱ. 통사적 의존성: 보조용언은 독립된 서술어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 ㄴ. 대용형에 의한 비대치성: 보조용언은 대용형으로 대치되지 못한다.
 - ㄷ. 공백화 불가능성(생략 불가능성): 보조용언은 생략될 수 없다.

각각의 특징을 적용하여 ‘싶다’ 구문을 전형적인 보조용언 구문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⁶⁾

6) 류시종(1995: 26)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보조용언 범주에는 원형적인 것, 혹은 더 문법화된 것이 있고 덜 원형적인 것, 덜 문법화된 것도 존재한다. 보조용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싶다’는 보조용언에 속할 수도,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을 연구한 윤정원(2011)에서는 ‘싶다’를 인용 보조용언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원형적이고 문법화된 보조용언과 ‘싶다’를 비교함으로써 이들과 ‘싶다’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2.1.1. 통사적 의존성

보조용언의 통사적 의존성이란 이들이 항상 선행 용언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용언이 생략되거나 용언이 아닌 체언, 수식언 등 다른 성분이 오면 비문이 되거나 보조용언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본용언에 비해 “통사적 자율성이 약하거나 결여되어 있(손세모돌 1996: 41)”다고 할 수 있다. (2)는 각각 보조용언 ‘보다’, ‘주다’, ‘붙이다’가 사용된 예인데 이들은 모두 선행 용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 (2) ㄱ. 제수씨가 생각을 {해 보세요/*보세요}.
- ㄴ. 그 사람이 학교에 같이 {가 줘서/*줬어}. (이상 손세모돌 1996: 42)
- ㄷ. 아저씨가 소를 세계 {몰아 붙였다/*붙였다}. (김영태 1997:22)

이러한 통사적 의존성은 ‘싶다’가 보조용언으로 취급된 이유 중 하나이다. ‘싶다’도 (3ㄴ, 3ㄷ)에서처럼 홀로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없고, (3ㄱ)처럼 선행 용언을 반드시 용언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 (3) ㄱ. 철수가 이미 갔나 싶다.
- ㄴ. *철수가 이미 싶다.
- ㄷ. *나는 생각을 싶다.

그러나 보조용언 구문은 일반적으로 본용언에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보조용언과 연결되지만, ‘싶다’는 선행 용언에 연결어미가 결합되지 않고 종결어미가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 (4) ㄱ. 좀 과민하게 대응한 {*것이어/것인가} 싶습니다.
- ㄴ. 영희가 이번 쫄파티에는 오지 {*않아/않을까} 싶다.
- ㄷ. 나도 도망쳐야 {*되고/되겠다} 싶었어요.

또한 다른 보조용언과 달리 반드시 선행 성분으로 용언을 요구하는 것

도 아니다. 명사구나 감탄사, 부사(어) 등이 선행 성분으로 오는 것이 가능하다.

(5) ㄱ. 처음에 진짜 아유 이런 황당한 얘기가 싶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가게 되었습니다.⁷⁾

ㄴ. 영상 백 개 중에 두 개 정도는 어라 싶은 게 있긴 해요.

ㄷ.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싶었어요.

따라서 ‘싶다’는 선행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보조용언과 유사하지만, 선행 성분이 종결어미와 결합될 수 있다는 점, 선행 성분이 반드시 용언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에서 ‘싶다’의 통사적 의존성은 보조용언의 통사적 의존성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1.2. 대용형에 의한 비대치성

보조용언은 대용형에 의해 대치될 수 없다. 선행 용언이나 선행 용언과 보조용언이 ‘그러하다’, ‘그러다’ 등으로 대용될 수 있지만, 보조용언 홀로는 대용될 수 없다. (6ㄱ, ㄴ)은 선행 용언이 대용된 경우이고, (6ㄴ’)은 선행 용언과 보조용언 전체가 대용된 경우이다. 보조용언만이 대용되는 (6ㄷ)은 불가능하다.

(6) ㄱ. 나라가 웃고 있다. 유미도 그러고 있다. (김기혁 1987: 21)

ㄴ. 철수는 딸기를 먹어 보았고, 영희도 그러고 있다. (류시종 1995: 62)

ㄴ’. 철수는 딸기를 먹어 보았고, 영희도 그랬다.

ㄷ. *철수는 딸기를 먹어 보았고, 영희도 먹어 그랬다.

손세모들(1996: 43-44)에서는 보조용언이 대용형에 의해서 대치될 수 없는 것은 보조용언이 어휘 요소보다는 문법 요소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7) 이 경우에 ‘얘기가’에 상승 억양이 실리고 휴지가 개재되는 편이 자연스럽다.

하였다. 어휘 요소는 대용형으로 대치되는 반면 문법 요소들은 대용형으로 대치되지 않는 특징이 보조용언에도 적용된 것이다.⁸⁾

하지만 ‘싶다’가 사용된 자리에는 ‘그러다’가 사용될 수 있다. (7ㄴ)은 ‘싶다’가 ‘그러다’로 교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ㄷ)은 선행 용언을 포함해서 ‘그러다’로 교체된 경우인데, 이때 단순히 선행 용언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용언과 같은 절 층위에 있는 ‘내일이’까지 대용되어야 한다. 이는 ‘싶다’가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선행 용언이 아니라 선행 용언이 포함된 문장 전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⁹⁾

- (7) ㄱ. 영희는 내일이 운동회인가 싶겠다. 철수도 내일이 운동회인가 싶겠다.
- ㄴ. 영희는 내일이 운동회인가 싶겠다. 철수도 내일이 운동회인가 그러겠다.
- ㄷ. 영희는 내일이 운동회인가 싶겠다. 철수도 그러겠다.

2.1.3. 공백화 불가능성

문이 접속될 때, 동일한 보조용언이 사용되어도 선행문의 보조용언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는 연속 동사 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에는 적용되지 않는, 보조용언 구문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 (8) ㄱ. 한별이는 고구마를 삶아서 (먹었고), 두별이는 구워서 먹었다. (이선웅 1995: 23)
- ㄴ. 영희는 피자를 먹어 {버렸고/*∅}, 철수는 콜라를 마셔 버렸다.

8) 문법 요소인 ‘-었-’, ‘-겠-’, ‘-더-’ 등은 대용형으로 대치될 수 없다.

9) 이 경우 ‘싶다’ 자리에 ‘그러다’가 사용된다고 해서 대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싶다’와 더불어 ‘그러다’, ‘이러다’, ‘하다’는 모두 포괄 인용용언으로서 인용구문에서 다양한 인용용언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싶다’ 구문에서 논의된 ‘그러다’는 대용형이기보다 포괄 인용용언일 가능성이 높다.

(8ㄱ)에서 ‘삶아 먹다’는 연속 동사 구문이기 때문에 선행문에서 ‘먹다’가 생략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8ㄴ)에서 ‘먹어 버리다’는 보조용언 구문이기 때문에 선행문에서 ‘버리다’가 생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싶다’의 경우 연속 동사 구문처럼 선행문에서 ‘싶다’가 생략되는 것이 가능하다.

(9) ㄱ. 편지가 벌써 온 게 아닌지 {싶었고/∅} 택배도 같이 온 게 아닌지 싶었다. (김건희 2008: 137)

ㄴ. 그냥 어린이용을 만들 걸 그랬나 {싶고/∅} 지금 준비를 잘못했나 싶어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싶다’ 구문은 전형적인 보조용언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싶다’ 구문은 보조용언보다 특정한 형식의 보문을 요구하는 복문 구성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때 보문이 완전한 문장 형식일 필요는 없고, 명사구나 감탄사, 부사 등으로 이루어진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내포문과도 다르다.

2.2. 양태용언 구문과의 차이

지금까지 ‘싶다’ 구문이 복문 형태이며 따라서 ‘싶다’를 상위문 용언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싶다’의 의미는 무엇이며 보문과의 통사·의미적 관계는 어떠한가?

‘싶다’를 보문이 나타내는 명제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용언이라고 보는 논의도 존재한다. 양태용언이란 김지은(1998)에서 사용한 용어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 독립된 용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일정한 형식 안에서는 그 어휘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양태라는 특정한 범주를 나타내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일련의 어휘형

(김지은 1998: 25)

김지은(1998)에서 제시한 양태용언에는 ‘모르다, 쉽다, 어렵다, 좋다, 주다’ 등이 있다. 일례로 양태용언 ‘모르다’는 선행 용언이 보조사 ‘도’와 결합하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쉽다’도 선행 용언이 ‘-기(가)’와 결합하면 명제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11) ㄱ. 그 편에서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빠를지도 모른다. (김지은 1998: 24)

ㄴ. 오후에는 비가 올지도 모른다. (김지은 1998: 28)

ㄷ. 자칫 잘못했다간 죽도 밥도 안 되기 쉽습니다.

ㄹ. 시간을 단축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에 공사가 졸속으로 흘렀기 쉽다.

(이상 김지은 1998: 92)

김건희(2008)에서는 김지은(1998)의 양태용언의 기본적 논의를 받아들이면서 ‘싶다’를 양태용언으로 보았다. 이때 ‘싶다’는 화자나 주어의 [판단]의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판단]은 선행 명제에 대한 화자 혹은 주어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근거로는 ‘싶다’가 ‘내가 생각하기에’와 같은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과 호응할 수 있음을 들었다.

(12) ㄱ. 내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무척 화가 나셨나 싶었다.

ㄴ.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 약한 김사장님은 또 자기한테 왜 그러나 싶으셨겠죠?

(김건희 2008: 149, 152)

천성호(2020: 179)에서도 ‘싶다’를 양태용언으로 다루며, “화자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및 추측한 사태를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소극적 확신]의 양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확신을 [소극적 확신]과 [적극적 확신]으로 나누고 있는데, ‘소극적’이라는 용어는 확신성의 정도가 ‘적극적 확신’보다 비교적 떨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엄소영·이선웅(2020)에서는 ‘싶다’가 하나의 양태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고, 종결어미에 따라 양태 의미가 다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양태 의미를 정리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3> 엄소영·이선웅(2020)에서 제시한 ‘싶다’의 양태 의미

양태 의미		양태 구문
인식양태	가능성	추측 -ㄴ가/-는가/-나/-려나 싶다 -ㄴ까 싶다 -거니/-려니 싶다
		내적 사유 서술 -다/-지 싶다 -랴 싶다
	새로 앞	-구나 싶다
행위양태	의지	-ㄴ까 싶다

한편, 김지은(1998)에서 제시한 양태용언 구문의 통사적 특징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3) ① 양태용언은 용언 뒤에서만 실현된다.
 ② 양태용언이 선행 용언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대용화되지 못한다.
 ③ 등위접속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에 동일한 양태용언이 사용될 때, 선행 용언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생략될 수 없다.
 ④ 양태용언은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표현하는데, 이때 화자가 표면에 실현될 수 없고 통사적으로 기능할 수도 없다.
 ④-1 양태용언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할 수 없다.
 ④-2 양태용언이 쓰인 맥락에 대한 대답이나 반응에서 화자에 대응하는 표현이 올 수 없다.

이 중 ①, ②, ③은 앞서 보조용언 구문에서도 살펴본 통사적 특징이다. 양태용언은 보조용언의 외연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양태를 표시하는 보조용언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양태용언은 선행 용언에 보조사나

전성어미, 종결어미 등이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 용언에 연결어미가 결합하는 보조용언과는 다르다.

보조용언에서 살펴본 통사적 특징을 제하면, ④만이 남는데 이를 ‘싶다’ 구문과 비교하여 ‘싶다’가 전형적인 양태용언에 속할 수 없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더해 ‘싶다’ 구문에는 선행 명제가 설명의문문 형식일 수 있으나 양태용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2.2.1. 양태 담지자의 통사적 실현 가능성

양태는 일반적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Lyons 1977: 452)”로 정의된다. 양태 의미는 어휘 의미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태’는 문법 범주를 의미한다(Palmer 1986).

김지은(1998)에서는 양태용언에 양태 의미를 가지는 일반용언이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생각하다’, ‘믿다’, ‘예상하다’, ‘추측하다’와 같은 일반용언은 양태 의미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는 이들 고유의 어휘 의미에서 파생되는 것일 뿐이다. 양태용언은 이들과 달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하지만, 문장에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주체인 “양태의 담지자(박재연 2004: 45)”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일반용언과 비교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양태용언과 선어말어미 ‘-시-’의 결합 제약이다. ‘-시-’는 주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데 양태용언이 사용된 문장에서는 주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이더라도 ‘-시-’가 사용될 수 없다. 양태용언은 주어가 아닌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므로 주어와 호응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4) ㄱ. 할아버지께서는 떠나셨나 {보다/*보셨다}.

ㄴ. 할머니께서 오실지도 {모른다/*모르신다}.

김지은(1998)에 따르면, (14)는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용언 ‘보다’와 ‘모르

다'가 사용된 예이다. 모두 화자보다 상위자가 주어이기에 선행 용언의 경우 '-시-'가 결합될 수 있지만, '보다', '모르다'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표현이기에 '-시-'가 결합될 수 없다.

그러나 '싶다'의 경우 주어에 상위자가 오면 주어와 호응하여 '-시-'가 사용될 수 있다.

- (15) ㄱ. 아버지는 그날 그렇게 서둘러 들어가면서 아 세상에 뭐 이런 아가씨가 있나 싶으셨대요.
ㄴ. 여러분도 벚꽃을 보고 봄이구나 싶으셨을 거예요.

이때 '싶다'는 화자가 아닌 주어의 양태를 나타낸다. 이는 즉 '싶다'가 나타내는 양태의 담지자가 반드시 화자일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양태용언의 주어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통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는 또 다른 방법은 대답에서 주어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컨대 '만나서 반가워'와 같은 관용적인 문장은 주어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청자의 대답을 통해서 주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16) ㄱ. 갑: 만나서 반갑습니다.
ㄴ. 을: 저도요.

(김지은 1998: 62)

그러나 양태용언 구문은 대답에 주어가 실현되면 어색하다. 자연스러운 대답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느껴'정도일 것이다(김지은 1998: 62-63).

- (17) ㄱ. 갑: 비가 오려나 보다.
을: *나도.
ㄴ. 갑: 모두가 떠나게 생겼어.

을: *나도.

그러나 ‘싶다’ 구문에서는 주어가 종종 생략되지만 나타날 수 있고, 주어가 생략된 경우에도 생략된 성분에 대응하는 표현이 실현될 수 있다.

(18) ㄱ. 갑: 밥 먹고 낮잠이나 잘까 싶어.

을: 나도.

ㄴ. 갑: 철수가 도착하지 않았나 싶어요.

을: 저도요.

2.2.2. 설명의문문 형식과의 결합 여부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고 본다면, 양태가 표현된 선행 명제는 내용이 완전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박재연(2006: 212-213)에서는 설명의문문의 명제는 의문사로 표현되는 미지향을 가지기 때문에 추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추측은 그 대상이 되는 명제가 내용적으로 완성되어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태용언 ‘모르다’의 경우는 판정의문문 형식이 보문으로 나올 때는 양태용언으로 해석되지만, 설명의문문 형식이 보문으로 나올 때는 일반 용언으로 해석된다.

(19) ㄱ.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른다. (김지은 1998: 168)

ㄴ. 나는 그가 언제 올지도 모른다. (김지은 1998: 178)

(19ㄱ)에서 ‘모르다’는 ‘마지막 경기가 된다’라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ㄴ)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일반용언 ‘모르다’의 해석에 따라 ‘그가 오는 시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석된다. (19ㄴ)과 같이 미지향이 있는 설명의문문 형식이 보문으로 오면 ‘모르다’는 양태용언이 아니라 일반용언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리고 ‘모르다’가 일반용언으로 기능하면, 양태용언일 때와 달리 ‘모르다’의 경험

주가 주어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싶다’ 구문의 경우 설명의문문 형식을 내포할 수 있다.

(20) ㄱ. 사람들이 북적대길래 오늘 무슨 날인가 싶었는데요.

ㄴ. 이게 뭐지 싶어서 봉투를 뜯어봤는데 저에게 온 편지였어요.

(20)에서 화자는 ‘싶다’를 통해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에 대하여 판단을 내린다기보다 화자가 내적으로 가지는 ‘의문’이나 ‘의심’을 나타낸다. ‘모르다’처럼 판정의문문 형식일 때와 설명의문문 형식일 때 각각 양태용언과 일반용언으로 해석된다는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어떤 형식이 보문으로 나오든 ‘싶다’의 경험주가 주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배제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싶다’ 구문은 경우에 따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싶다’의 어휘 의미에서 기인한 것이다. ‘싶다’는 양태용언과 달리 ‘싶다’가 나타내는 양태 의미의 담지자가 주어로 실현되고, 설명의문문 형식도 보문으로 가질 수 있다.

2.3. 사유 인용구문으로서의 ‘싶다’ 구문

지금까지 다양한 통사적 특징을 통하여 ‘싶다’ 구문이 보조용언 구문과 양태용언 구문과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해당 절에서는 인용구문과 사유 인용구문에 대한 기본적 논의를 진행하고, 사유 인용구문으로서의 ‘싶다’ 구문을 수립할 것이다.

2.3.1. 인용구문의 개념과 특징

‘인용’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거나 말했던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나 생각했던 것, 또는 이전에 자신이 말했거나 생각했던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Jespersen 1924: 290). 인용은 언어를 표현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사물이나 사태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표현과 다르다(이필영 1995: 11). 인용된 발화나 생각은 ‘보고된 발화나 생각(reported speech or thought)’, ‘표상된 발화나 생각(represented speech or thought)’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편, 인용의 방식이 사용된 모든 구문을 인용구문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피인용문이 특정한 발화 주체가 없거나, 언어 표현을 메타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은 인용구문으로 다루지 않는다(이필영 1995: 11, 채숙희 2013: 47, 정연주 2021: 154 등). 따라서 (21)은 인용의 방식을 사용한 것이긴 하지만 인용구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21) ㄱ. ‘꽃’이란 한 음절로 된 명사이다.

ㄴ. ‘안녕하세요’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인사말이다.

(이필영 1995: 11)

채숙희(2013: 50)에서는 인용구문을 “인용동사가 사용된 구문 가운데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 쓰일 수 있는 피인용문을 보어로 취하는 구문”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용구문은 인용동사, 독립된 발화로 사용될 수 있는 피인용문, 그리고 인용동사와 피인용문의 보어¹⁰⁾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피인용문은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 쓰일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명사구, 감탄사 등도 피인용문이 될 수 있다.

(22) ㄱ. ‘Not for the Queen of England’, said Mrs Ramsay emphatically. (Banfield 1982: 32)

ㄴ.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에구머니나’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정연주(2021: 156-157)에서는 독립된 발화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인용구문에서만 나타나는 ‘-려니, -거니, -느니 … -느니’ 등의 형식이 존재함을 주장하면서,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 쓰일 수 있는’을 “하나의 독립

10) 이때의 ‘보어’라는 것은 피인용문이 인용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채숙희 2013: 53, 각주 36).

된 발화로 쓰일 수 있거나 늘 인용동사 또는 인용명사와 함께 쓰여 인지나 발화의 내용을 드러내는 데 특화된 형식을 지니는 피인용문”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려니’와 ‘-거니’는 사유의 인용에, ‘-느니 … -느니’는 발화의 인용에 전용된다(정연주 2021: 156).

(23) ㄱ. 다 내가 너무 무식한 탓이려니 생각했다.

ㄴ. 나는 철수가 도와주겠거니 생각했다.

ㄷ. 돈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시끄럽다.

(정연주 2021: 15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용구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4) 인용술어가¹¹⁾ 사용된 구문인면서,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 쓰일 수 있거나 늘 인용술어와 함께 사용되어 사유나 발화의 내용을 드러내는 데 특화된 형식을 지닌 피인용문을 보어로 취하는 구문

인용구문은 전통적으로 인용 방식에 따라 직접인용 구문과 간접인용 구문으로 구분된다. 직접인용 구문에서는 원형식을¹²⁾ 비교적 그대로 옮기고, 간접인용 구문에서는 원형식을 인용 화자의 관점에 맞추어 화시소(deixis)가 전이(shift)된다고 알려져 있다(Quirk et al. 1985 등). 예컨대 철수가 영희에게 “내일 나와 여기서 밥 먹자”라고 한 것을 영희가 그 다음날 말한다고 가정해보자. 직접인용 구문과 간접인용 구문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1) 인용술어는 인용명사, 인용동사, 인용형용사를 모두 포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싶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인용형용사에 속한다. 인용명사와 관련해서는 박미은(2021) 참조. 인용용언은 인용동사와 인용형용사만을 지시한다.

12) 피인용문은 발화뿐 아니라 사유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발화’보다는 ‘원형식(original form)’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때의 ‘원형식’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원화자가 생각했음 직한 형식을 지시하는 것에 가깝다. 덧붙여, 사유의 인용에서는 원화자(original speaker) 대신 ‘원인지자(Cognizant)(Halliday 1994)’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원화자라고 지칭한다.

- (25) ㄱ. 철수가 나에게 “내일 나와 여기서 밥 먹자”라고 했어.
 ㄴ. 철수가 나에게 오늘 자기와 그 식당에서 밥 먹자고 했어.

(25)의 화시소는 원발화의 ‘내일’, ‘나’, ‘여기서’ 총 세 가지이다. 이들은 직접인용 구문인 (25ㄱ)에서는 유지되나 간접인용 구문인 (25ㄴ)에서는 인용 화자인 ‘영희’의 관점에서 모두 전이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직접인용은 ‘말 그대로의(verbatim) 인용’을 위해서 간접인용은 ‘인용 화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말해졌는지’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논의되기도 하였다 (Leech & Short 1981: 318).

한국어의 직접인용 구문과 간접인용 구문의 구분에는 화시소의 전이뿐 아니라 상대높임과 문장종결법의 중화 여부도 중요하게 언급된다. 직접인용 구문에서는 피인용문 종결어미 유형의 제약 없이 상대높임법과 함께 실현될 수 있으나, 간접인용 구문에서는 종결어미와 상대높임법이 모두 중화된다. 따라서 인용절의 문장유형이 평서문이면 ‘-다’, 의문문이면 ‘-냐’, 명령문이면 ‘-라’, 청유문이면 ‘-자’ 등으로 나타나야 한다.

- (26) ㄱ. 그가 “이것은 강철입니다”하고 말했다.
 ㄱ'. 그가 이것은 강철이라고 말했다.
 ㄴ. 그가 “철수는 집에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ㄴ'. 그가 철수는 집에 있느냐고 물었다.
 ㄷ. 그가 “여기서 기다려라”하고 일렀다.
 ㄷ'. 그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일렀다.
 ㄹ. 나는 “내일 한 시에 만납시다”하고 제안했다.
 ㄹ'. 나는 내일 한 시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남기심 1971: 227-228 일부 수정)

한편, 화시소의 전이는 언어마다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특히 시제의 전이와 관련하여서는 이것이 구문의 특정 유형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Comrie 1985: 302-303, Coulmas 1986). 영어에서

는 간접인용 구문이 시제에 있어 변이를 보이지만, 러시아어나 일본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간접인용 구문에서 피인용문의 시제는 원화자의 것이 유지된다(문숙영 2012ㄴ).

(27) ㄱ. She said, “I was ill” → She said that she had been ill.

ㄴ. 그녀는 “아팠어.”라고 말했다. → 그녀는 아팠다고 말했다.

(문숙영 2012ㄴ: 222)

(27ㄱ)은 영어의 예로, 원형식에서 과거시제인 것이 간접인용 구문에서 과거완료로 바뀐다. 반면, (27ㄴ)을 보면 한국어는 원발화의 과거시제가 간접인용 구문에서도 과거시제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화시소의 전이는 시제를 제외하고 인칭대명사, 시간·공간 화시소, 지시사, 선어말어미 ‘-시-’의 사용¹³⁾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간접인용 구문에서 원칙적으로 전이를 겪는 화시소더라도 수의적으로 화시소가 전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이분적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직접인용 구문에서도 피인용문에 인용 화자의 관점이 부분적으로 개입될 수 있고, 간접인용 구문에서도 원화자의 관점이 남아있을 수 있다.

(28) ㄱ. 근데 엄마가 막 울면서 옛날에 그러는 거야, 세현아, 너는 절대 장남한테 시집가지 말라구, 나는 내 딸은 장남한테 안 보낸다고 막, 엄마가 아빠 없는 데서 그러드라. (채숙희 2013: 39)

ㄴ. 그때 철수는 “자기도 지금부터 일했으면…….”하고 생각했다. (안경화 1995: 69)

13) 간접인용 구문에서 주체높임 ‘-시-’는 원화자의 관점을 따르지 않고 인용화자의 관점을 따른다.

i. 선생님께서는 {당신께서, e}i 내일 가신다고 했다.

ii. 철수는 영수에게 내가 어제 오(*시)었다고 말했다.

<‘나’는 인용화자로서 ‘철수’의 선생님임.>

(이필영 1995: 24-25)

(28ㄱ)은 문장종결법은 중화되었으나 화시소 ‘너’, ‘나’가 원화자인 ‘엄마’의 시점으로 표현되고 있고, (28ㄴ)은 문장종결법이 중화되지 않았으나 ‘자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한 직접인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중간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인용구문을 직접인용 구문과 간접인용 구문으로 나누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실제로 상대높임과 문장종결법이 중화되고 화시소의 전이가 일어나는 등 간접인용 구문의 기제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용구문과 관련된 특징을 다룰 때 해당 현상이 어떤 구문적 성격에 속하는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2.3.2. 사유 인용구문의 개념과 특징

인용은 발화뿐 아니라 사유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¹⁴⁾¹⁵⁾ 채숙희(2013: 45-46)에서는 사유는 비록 화자의 내면에서만 이루어지고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발화와 마찬가지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사유의 내용을 언어로 표현할 때도 발화를 인용할 때와 같은 형식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인용의 범위로 넣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용구문을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도 발화의 인용과 더불어 사유의 인용을 함께 다루었다(Banfield 1982, McGregor 1994, Aikhenvald 2008, Vandelanotte 2009 등).

Palmer(1986: 135-136)에서는 여러 언어에서 발화 동사에 사용되는 간접인용 구문이 사유, 앎, 추측, 결론 등을 나타내는 동사와도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거칠게 말하면 발화 인용구문과 사유 인용구문은 통사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한국어에서도 발화를 인용할 때처럼 인

14) 다른 사람의 생각은 발화되거나 문자화되지 않는 한 인용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생각’을 인용의 대상에서 제외한 연구들도 있다(남기심 1973, 전영철 1990, 이창덕 1994 등).

15) 본고에서는 변정민(2001)에 따라 ‘인지’를 ‘사유’보다 큰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정확하게 인지 인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나, 정신 작용에 대한 인용을 보통 ‘represented thought’으로 함에 따라 ‘사유 인용’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용용언과 피인용문을 사용하여 사유를 인용할 수 있다.

(29) ㄱ. 그가 이것은 강철이라고 말했다.

ㄴ. 그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발화의 인용과 사유의 인용이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Givón(2001 ㄱ: 149-16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보문을 취하는 동사 부류를 구분하면서 하나의 유형으로 ‘지각(perception), 인지(cognition), 발화(utterance) 동사(PCU 동사)’를 제시하였는데, 이때 PCU 동사는 동일한 통사·의미적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¹⁶⁾ 즉, 발화와 인지 그리고 지각을 표현할 때 유사한 통사·의미적 특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유 인용이 (29ㄴ)처럼 간접인용 형식으로만 나타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Banfield(1982: 35-36)에서는 직접인용은 발화동사에 한정되며, 사유 동사인 ‘think’가 예외적으로 직접인용 형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think’가 ‘스스로와의 대화(self-communication)’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화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필영(1995: 22)에서도 원화자의 내적 발화를 인용하는 경우 상대높임 등급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간접인용의 형식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30ㄱ)을 보면, 문장종결법이 중화되어 있지 않고, 두 문장이 별도의 연결어미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 등을 통해 사유의 인용도 직접인용 구문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에서도 ‘think’ 외에도 ‘be like, go like’ 등의 구성을 통해 사유를 직접인용 형식으로 인용할 수 있다(Aikhenvald 2

16) Givón(2001 ㄱ: 153-157)에서 제시한 PCU 동사의 의미적 정의와 통사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미적 정의

- 모문의 동사는 정신적인 사태나 사건, 발화 행위를 부호화함.
- 동사의 주어는 여격이나 행위주임.
- 보문의 사태나 사건은 주절 사태나 사건의 목적어임.

통사적 정의

- 모문의 주어, 목적어와 보절의 주어와 공지시 제약 없음.
- 보문은 주절의 일반적인 정형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영주어 아님.
- 내포문은 subordinator 형태소가 선행할 수 있음.

008: 411, Sams 2010 등).¹⁷⁾

(30) ㄱ. 그는 “언어학이 재미있구나! 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지.”하고 생각했다. (안경화 1995: 71)

ㄴ. It took me a while to get back to you and I was like <<breathy>> gosh-she's going to think I'm horrible. (Sams 2010: 3151)¹⁸⁾

(30ㄱ)에서 사용된 종결어미 ‘-구나’나 ‘-어야지’는 간접인용 구문이었다면 중화된 어미 ‘-다’로 나타나야 하고, (30ㄴ)의 ‘she’는 현재의 청자를 지시함에도 ‘you’로 나타나지 않고 화시소가 유지되고 있고, 시제 또한 사유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는 종결어미로 다양한 양태를 표현할 수 있는데, 간접인용 구문에서 나타나는 종결어미의 중화는 종결어미의 양태 의미를 탈락시킨다. 따라서 원형식에 특별한 종결어미가 사용된 경우는 간접인용 구문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직접인용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당시의 양태를 보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31) ㄱ. 철수 아버지가 철수에게 “내가 좀 도와 줄까”하고 말했다.

ㄴ. *철수 아버지가 철수에게 자기가 좀 도와 (주느냐/주려느냐/주겠느냐)고 물었다.

(이창덕 1994: 235)

(31ㄱ)에서 피인용문에 사용된 종결어미 ‘-ㄹ까’는 원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31ㄴ)처럼 피인용문을 간접인용 형식에 맞추어 문장종결법을 ‘-냐’로 중화시키면 [의도]의 의미는 전달되지 못한다.

17) 사유 동사 중에는 간접인용 구문만을 허용하는 것들도 있다. 채숙희(2013)에서는 직접 인용 구문이 불가능한 사유 동사를 ‘내재 동사’라고 정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Halliday(1994)에서도 의미적으로 복잡한 동사들은 간접인용 구문에만 사용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imply, remind, hypothesize, deny’ 등의 동사가 속한다.

18) 밑줄은 본고가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사유를 나타내는 경우 피인용문의 명제 내용보다 그 속에 담긴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 즉 양태 의미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32) ㄱ. 백일 돌상은 꼭 한복 입혀서 전통상으로 했는데 이제 보니 예쁜 옷 입혀 볼걸 싶더라.

ㄱ'. *예쁜 옷 입혀 본다고 생각했어.

ㄴ. 그 시간에 운동이라도 하자 싶어 헬스장 등록을 했어요.

ㄴ'. ??그 시간에 운동이라도 하자고 생각해서 헬스장 등록을 했어요.

(32ㄱ)과 (32ㄴ)은 각각 피인용문의 종결어미가 [후회]와 [결심]을 나타내는데 이들은 모두 간접인용 구문으로 바뀌면 원래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어 어색해진다. 따라서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유의 인용에서 원형식의 종결어미를 그대로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양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화 인용과 사유 인용은 통사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사유 인용구문은 발화의 인용구문과 달리 원형식이 청자를 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징을 가진다. 첫째, 원형식의 청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자가 상위문에서 여격어로 실현될 수 없다.

(33) ㄱ. 복남이는 복순이에게 집에 가자고 말했다.

ㄴ. 복남이는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ㄴ'. *복남이는 복순이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신선경 1986: 21)

둘째, 직접인용 구문의 경우 피인용문 종결어미로 주로 단독적 장면에서 사용되는 독백문 종결어미가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화자의 의심을 나타내는 간접의문어미 '-ㄴ가, -ㄴ까, -나' 등이 있다. 이들은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독적 장면에서 화자 스스로의 의문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

셋째, 피인용문에 선어말어미 ‘-더-’가 사용될 수 없다. 이필영(1995: 47-48) ‘-더-’가 사용될 수 없는 이유를, ‘-더-’가 과거의 인지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고’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유동석(1981)의 논의를 받아들여 설명하였다. 사유는 객관적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보고’의 의미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 (34) ㄱ. 그 사람은 현장에 갔는데 “후라이팬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ㄴ. ??철수는 “영이가 참 잘 먹더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가 항상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거기 떡볶이가 정말 맛있더라”와 같은 문장은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대한 보고임에도 ‘-더-’가 사용되었다. 박재연(2006: 162-163)에서는 ‘-더-’는 의미 속성으로 [청자 미지]를 가진다고 하였다. 청자를 상대로 청자가 알지 못할 법한 정보를 제공할 때 ‘-더-’를 사용한다. [청자 미지]이든 [보고]이든, 이들은 모두 청자를 전제하는 의미 속성이다. 따라서 사유 인용구문에서 ‘-더-’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더-’가 기본적으로 청자를 상정하는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유 인용구문은 주로 일인칭 주어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개인의 감정이나 사유를 나타내는 용언은 주로 일인칭으로 나타나야 하는 제약이 있다(Yang 1972, 김흥수 1989 등).¹⁹⁾ 심리형용사와 감각형용사와 더불어 사유 인용구문의 인용용언은 내면의 사유를 표현하므로 마찬가지로 일인칭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제약을 가진다.

- (35) ㄱ. {나/??철수}는 행복해.
 ㄴ. {나/??철수}는 따가워.
 ㄷ. {나/??철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

19) 인칭 제약은 시점의 옮김, 추측 표현의 사용, 과거 시제의 사용, 전언 표지의 사용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유현경 1998, 이정민 2016 등).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유 인용구문은 발화 인용구문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36) ① 월청자가 여격어로 실현되지 않는다.
- ② 보통 종결어미로 독백체 종결어미가 사용된다.
- ③ 피인용문에 청자를 전제해야 하는 선어말어미 ‘-더-’가 사용될 수 없다.
- ④ 인용 화자가 일인칭으로 나타난다.

2.3.3. 사유를 인용하는 ‘싶다’ 구문

2.1.과 2.2.에서는 ‘싶다’ 구문이 보조용언 구문이나 양태용언 구문에 속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싶다’ 구문을 보조용언 구문도 양태용언 구문도 아닌 인용구문의 일종으로 보고자 한다.

‘싶다’의 보문은 다른 내포문에 비해 특수하다. 반드시 서술어로 종결될 필요가 없으며, 서술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발화할 수 있는 ‘문장’이 그대로 보문 형식이 된 것으로, 이는 인용구문의 특징이다. 또한 보문의 화시소가 원사유자 관점에서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다.²⁰⁾ 이는 다른 내포문에 비해 상위문의 제약을 덜 받는 직접인용 구문의 특징이기도 하다. 언어 유형적으로 직접인용 구문은 내포문의 일종으로 다루지 않거나 간접인용 구문에 비해 상위문에 대한 통합도가 낮다고 보기도 한다(Givón 2001 7: 156).

그러나 본고에서는 ‘싶다’ 구문이 인용을 나타내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특정한 양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ㄴ가/ㄴ까/나 싶다’ 구문이 [추측]을 나타내거나, ‘-ㄴ까 싶다’ 구문이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양태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²¹⁾

20) 이는 3.1.2.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21) 실제로 이들이 어느 정도 굳어진 양태 표현임은 ‘-ㄴ가/ㄴ까/나’ 뒤에 보조사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인용구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인용구문은 인용을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증거성, 양태, 상 등의 부차적인(secondary)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Aikhenvald 4장, Spronck&Nikitina 등). 이는 의미적 탈색(bleaching)이나 이미 인용구문에 존재하는 의미 요소가 강화되면서 일어난다. 만약 증거적 의미가 강화되면 인용구문은 의미적으로 지각 사건과 관련된 비인용적 성질을 가진 구문으로 파생될 수 있고, 양태적 의미가 강화된다면 양태 구문이 될 수도 있다(Spronck&Nikitina 2019: 152). Spronck&Casartelli(2021)에서는 남아메리카 언어를 조사하였는데, 인용구문을 기원으로 하여 확장된 형태(extended reported speech)가 [희망], [미래], [기동], [원인·이유]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종종 발견되었다.

특히 양태 표현과 관련해서는, 사유 인용구문이 인용 표현과 양태 표현의 다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Givón(2001: 53)에서는 사유 인용과 발화 인용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think’와 ‘know’의 주어는 보문 명제에 대한 상당한 “인식적 믿음의 정도(epistemic commitment)”를 가지는 한편, ‘say’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 (37) ㄱ. *She thought he left, though she {knew/thought} he didn't.
 ㄴ. *She knew he left, though she {knew/thought} he didn't.
 ㄷ. She said he left, though she {knew/thought} he didn't.
 (Givón 2001: 53)

(37ㄱ, 37ㄴ)에서는 인지 동사가 사용되었고, (37ㄷ)에서는 발화 동사가 사용되었다. (37ㄱ, 37ㄴ)은 인지 동사를 사용함에 따라 보문 명제에 대한

‘도’가 결합할 수 있음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사의 결합은 인용표지 뒤에서는 가능하나, 피인용문 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인용 구문의 특징 내부에서 설명되기 어렵다. 말뭉치에서 보조사가 붙을 수 있는 피인용문 종결어미는 ‘-르까/ㄴ가/나’ 뿐이었다.

- i. 직접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볼까도 싶은데요.
- ii. 그 일 때문에 만날 사람 있어서 오신 건가도 싶고 ...

인식적 믿음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후행문에 이 믿음을 부정하는 문장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37ㄷ)은 발화 동사가 사용되었었고, 발화 동사는 주어의 믿음의 정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는 사유 동사가 양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유 인용구문이 양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전용되어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싶다’ 구문의 경우 그것의 양태 의미는 풍부하게 연구된 데 비해, 일차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인용구문적 특징에 관하여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싶다’ 구문을 인용구문 층위에서 자세하게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싶다’ 구문의 인용구문적 특징

3.1. 직접인용 구문적 특징

3.1.1. 다양한 피인용문 문말어미의 사용

피인용문에 사용될 수 있는 문말어미의 목록은 인용구문이 직접인용 구문인지 간접인용 구문인지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접인용 구문의 경우 제약 없이 다양한 문말어미가 올 수 있지만, 간접인용의 구문의 경우 문장종결법과 상대높임이 중화되어, ‘-다’, ‘-냐’, ‘-라’, ‘-자’ 등의 종결어미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싶다’ 구문에 올 수 있는 피인용문 종결어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4>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싶다’의 피인용문 종결어미 목록

선행 연구	피인용문 종결어미 목록
엄정호(1990)	-ㄴ가, -ㄴ까, -나, -지, -구나, -다
박재연(1999)	-ㄴ가, -ㄴ까, -나, -지, -구나, -다, -ㄴ지, -어라, -랴, -어야지, -네, -ㄴ걸
안주호(2006)	-ㄴ가, -ㄴ까, -나, -지, -구나, -다, -ㄴ지, -어라, -랴, -어야지, -네, -ㄴ걸, -리라, -련만, -려나
이지연(2020)	-ㄴ가, -ㄴ데, -ㄴ걸, -ㄴ까1(-ㄴ꼬) ²²⁾ , -ㄴ까2, -ㄴ라, -거니, -구나(-군, -로구나), -나, -냐(-느냐, -더냐), -네, -누나, -다(-라, -야, -어), -다니, -랴, -려니, -리라, -어라, -자(-자꾸나), -지

22) 이지연(2020)에서는 ‘-ㄴ까’를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ㄴ까1’과 [제안]의 의미를 가지는 ‘-ㄴ까2’를 구분하였다. 이때의 [제안]은 [의도]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사용한 말뭉치를 통해 확인한 ‘싶다’의 피인용문 문말어미²³⁾ 목록은 <표5>와 같다. 이 중 밑줄 친 것은 <표4>의 목록에는 없지만 본고의 말뭉치에서 발견된 예이다.

<표5> ‘싶다’의 피인용문 문말어미 목록

-르까, -ㄴ가, -나, -다, -지, -구나, -었으면²⁴⁾, -냐, -ㄴ데, -네, -어, -자, -ㄴ지, -르지, -어야지, -려나, -거니, -랴, -어라, -니까, -려니, -길래, -리라, -르런가, -르걸, -군, -더라, -다니

추가적으로 발견된 ‘-니까, -길래’ 등은 기본적으로 연결어미이지만, 후행절이 생략된 채로 피인용문의 문말에 사용될 수 있다.

- (1) ㄱ. 이 양반이 이번에는 안경 끼고 손에 직접 원고 들고 읽으면서 상당히 좀 더듬기도 하고 이런 장면까지 노출했는데 뭐 아마 녹화로 한 게 아니니까 싶기도 했죠.
 ㄴ. 대체 물이 뭐길래 싶지마는 이 물이 사실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피인용문에 실제 발화에서는 종결어미로 사용되지 않는 ‘-려니’와 ‘-거니’가 사용될 수 있다. ‘-려니’와 ‘-거니’가 ‘싶다’의 피인용문 문말에 사용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사유 인용구문에서만 나타나는 어미이다.

- (2) ㄱ. 이게 그냥 운이려니 싶기는 했는데 이 고양이가 좀 특별합니까?
 ㄴ. 처음엔 좀 덤병대는 성격이겠거니 싶었어요.

23) 본고에서는 피인용문 문말에 종결어미뿐 아니라 연결어미도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말어미라고 통칭한다.

24) 연결어미 ‘-으면’은 항상 ‘-었-’이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었으면’은 탈종속화 되어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문숙영 2015: 18).

i. 이대로 곧장 저 아래로 떨어져 버렸으면.
 ii. 7월 9일 아프지 않았으면. (이상 문숙영 2015: 18)

한편, 이렇게 다양한 문말어미가 ‘싶다’ 구문의 피인용문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말어미가 제약 없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싶다’ 구문 피인용문의 문말어미 상위 10위와 전체 문말어미 상위 10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²⁵⁾²⁶⁾

<표6> ‘싶다’의 피인용문 문말어미와 전체 문말어미의 비율

순위	‘싶다’의 피인용문 문말어미	비율	누적 비율	전체 문말어미	비율	누적 비율
1	-르까(-을까)	39.47	39.47	-어(-아, 야)	49.5	49.5
2	-다(-니다, -는다)	19.33	58.8	-지	9.48	58.98
3	-나	12.06	70.86	-잖아	8.19	67.17
4	-는가(-은가, -는가)	10.38	81.24	-거든	4.49	71.66
5	-구나(-는구나)	4.44	85.68	습니다(-습니다)	3.44	75.1
6	-었으면	0.78	86.46	-는데(-은데, -는데)	3.18	78.28
7	-는데(-은데, -는데)	0.76	87.22	-더라고	2.9	81.18
8	-어(-아, -야)	0.34	87.56	-다(-니다, -는다)	2.87	84.05
9	-네	0.3	87.86	르까(-을까)	1.75	85.8
10	-자	0.24	88.1	-나	1.47	87.27

해당 목록을 보면, ‘싶다’의 피인용문 문말어미로 사용되는 상위 5위 어미들과 전체 말뭉치에서 문말어미로 사용되는 상위 5위 어미들이 겹치지

25) 전체 말뭉치에서 종결형에 오는 어미는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앞에 오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로 형태소 태깅된 것들을 통해 구하였다.

26) 보조사 ‘요’가 결합한 어미는 결합하지 않은 어미 목록에 함께 포함하였다. 예컨대 ‘-어요’는 ‘-어’와 합산하였다.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문말어미에서는 상대높임 등급이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으나(3ㄱ), ‘싶다’의 피인용문 문말어미에서는 상대높임 등급이 ‘해라’체와 ‘해’체에 속하는 종결어미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3ㄴ, 3ㄷ).

- (3) ㄱ. 그때 말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좋겠소/좋겠네/좋겠다/좋겠어/좋겠어요}.
- ㄴ. 차라리 벅커 침대를 사주면 {어떨까/*어떨까요} 싶기도 합니다.
- ㄷ. 차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가니까 뭔가 {이상하다/*이상합니다} 싶어서 쫓아갔습니다.

‘해라’체와 ‘해’체에 속하는 어미이더라도 상관적 장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미들은 피인용문 문말어미로 실현될 수 없다. 예컨대 ‘-어’는 원칙적으로 청자가 있을 때 사용되고²⁷⁾, ‘-다’는 청자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된다(이익섭·채완 1999: 226). 따라서 ‘싶다’ 구문 피인용문 종결어미로 ‘-다’는 가능하나, ‘-어’는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청자를 상정해야 하는 ‘-잖아’와²⁸⁾ ‘-더-’가 통합된 평서형의 ‘-더라’²⁹⁾, ‘-더군’ 등의 종결어미도 피인용문 종결어미로 사용될 수 없다.³⁰⁾

27) 그렇다고 해서 ‘-어’가 항상 상관적 장면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사 작용으로 사용될 때는 ‘-어’가 배타적이고 독보적으로 출현한다(박나리 2004: 99). 이처럼 단독적 장면에서 사용되는 ‘-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8) 정원수(1998), 손세모들(1999) 참조.

29) ‘-더라’가 의문문 어미로 사용되면 단독적 장면에서 사용될 수 있다.

i. 내가 언제 뭘 먹었더라? 《표준국어대사전》

이때의 ‘-더라’는 ‘싶다’ 구문 피인용문 종결어미로 사용될 수 있다.

ii. 시간이 지나서 아 그게 뭐더라 싶을 때 정말 답답해요.

30) 동일한 형태의 종결어미더라도 상관적 장면에서만 사용되는 용법이 있다면 해당 용법으로는 ‘싶다’ 구문 피인용문에 나타나지 못한다. 예컨대 ‘-르걸’은 [추측]의 의미일 때는 상관적 장면에서만 사용되고, [후회]일 때는 상관적 장면과 단독적 장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싶다’ 구문 피인용문에는 후자의 의미인 ‘-르걸’만 나타난다.

i. 그 소리를 듣고 나니 그렇게 살지 말걸 싶었어요. [후회]

ii. ??내일 비 올걸 싶다. [추측]

- (4) ㄱ. *그는 갔어 싶다. (안주호 2006: 378)
- ㄴ. *피규어 사라고 그렸잖아 싶다.
- ㄷ. *영희씨 아주 멋진 친구를 뒀더라 싶었다.

나아가 피인용문 문장 유형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으로 나타날 수 없고 항상 평서문이나 의문문으로만 나타난다. 이는 명령문과 청유문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청하기 때문에 청자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 (5) ㄱ. 그는 {갔구나/갔지/갔다} 싶다.
- ㄴ. 영희가 {갔나/갔는지/갔냐/갔을까} 싶다. (이상 안주호 2006: 378)
- ㄷ. *나는 {가라/가자} 싶다.

피인용문 종결어미에 명령형 어미 ‘-어라’, 청유형 어미 ‘-자’가 사용되는 예문도 발견되지만, 이는 전형적인 명령문과 청유문으로 볼 수 없다. (6ㄱ)은 ‘-어라’가 사용되었지만 청자가 특정되지 않는 [기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6ㄴ)은 ‘-자’가 사용되었지만 항상 주어가 일인칭으로 나타나며, 스스로의 [결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청자를 전제하지 않고 화자가 자신의 사유를 나타낼 뿐이기에 피인용문으로서 적합하다.

- (6) ㄱ. 제발 아무나 여기 카페 차려라 싶은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 ㄴ. 후반을 생각해 돈을 조금 아끼자 싶어서 에펠 타워를 안 올라갔는데 이게 나중 되니까 후회가 많이 남더라구요.

그렇다면 평서형과 의문형 어미는 제약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싶다’의 피인용문은 평서문과 의문문의 전형적인 화행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언이나 질문 화행을 수행하지 않는다. 먼저, 의문형 어미가 결합한 경우 수사적의문문이나 자문 등의 특수한 의문문으로만 실현된다. 청자에게 정보를 구하는 질문 화행은 성립될 수 없다. Searle(1969: 66)에 따르면 질문 화행은 ‘청자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시도로 간주된다’라는 본질

조건을 가지는데³¹⁾, 사유는 청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에 이 조건은 성립될 수 없다. (7)은 피인용문이 질문 화행을 수행하는 의문문으로 해석되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7) ㄱ. *나는 철수가 내일 발표해야 해 싶었어.

ㄴ. *나는 오늘 점심 메뉴가 뭐야 싶어.

수사의문문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단언의 발화수반력을 가지는 의문문 형식으로 정의된다(Brown & Levinson 1987, Frank 1990, 이현희 1982 등). 따라서 수사의문문에서 화자는 문장에서 표현되는 명제에 대한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문 화행이 아니다. 한편, 자문은 스스로에게 묻는 행위로, 화자가 명제에 대한 정보를 원하나 해당 정보를 청자로부터 구하는 시도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질문 화행이 아니다. 자문은 곧 ‘질문’을 하기 전의 ‘의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²⁾ (8ㄱ)은 수사의문문을, (8ㄴ)은 자문을 나타낸다. 이들은 모두 ‘싶다’ 구문의 피인용문 형식으로 적합하다.

(8) ㄱ.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강규영 2022: 488)

ㄱ'.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싶어.

ㄴ. 어린 처녀가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하던데 왜 그랬을까?

(박재연 2000: 40)

ㄴ'. 어린 처녀가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하던데 왜 그랬을까 싶어.

31) 명제 조건: 어떤 명제나 명제의 함수

준비 조건: (i) 화자는 대답을 알지 못한다.

(명제가 참인지 알지 못하거나, 명제적 함수의 경우, 명제를 참으로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ii) 물어보지 않으면 청자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화자와 청자에게 불분명하다.

성실성 조건: 화자는 해당 정보를 원한다.

본질 조건: 청자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시도로 간주된다.

(Searle 1969: 66)

32) Lyons(1977: 755)에서는 의문(question)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자문은 의문사 유무에 따라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선택지를 제한하는 선택의문문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 형식은 모두 피인용문에 올 수 있는 반면, 선택의문문의 경우 제한된다.³³⁾

- (9) ㄱ. 그 사람이 범인인가 싶어서 유심히 지켜봤어요. [판정의문문]
 ㄴ. 코브라를 처음 발견한 장소가 어딜까 싶은데요. [설명문의문문]
 ㄷ. ??유주가 주변인가 승철이가 주변인가 싶어요. [선택의문문]
 ㄷ'. 유주가 주변인가, 승철이가 주변인가?

평서문은 화자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 유형인데, 사유에서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정보만이 담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실제 세계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단순히 진술하는 문장은 피인용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10) (철수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ㄱ. ??철수가 자전거를 탄다 싶어.
 ㄴ. 벌써 철수가 자전거를 타는구나 싶어.

(10ㄱ)과 달리 (10ㄴ)에서는 화자의 명제에 대한 주관적인 사유가 부사어 ‘벌써’와 ‘-구나’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피인용문으로 적합하다. 다시 말해, ‘싶다’ 구문에는 참 또는 거짓의 진릿값을 따질 수 없는 피인용문만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철수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철수가 자전거를 탄다’라는 문장의 명제는 참 혹은 거짓의 진릿값을 가지나, 양태 표현이 담긴 ‘벌써 철수가 자전거를 타는구나’는 진릿값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싶다’ 구문은 청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유를 인용하기 때문에 피인용문 문말어미로 단독적 장면에서만 사용되는

33) ‘싶다’의 피인용문으로 선택의문문 형식이 제약된다는 것은 5.2.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해라’체와 ‘해’체의 어미로 제한되고, 문장 유형이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의문문은 수사의문문과 자문만을 허용하고, 평서문은 주어의 주관성이 들어간 문장만을 허용한다.

3.1.2. 화시소의 유지

직접인용 구문은 피인용문의 화시소가 원화자의 것으로 유지된다. 화시소에는 크게 인칭대명사, 시간 및 공간 화시소, 지시사 등이 있다. 먼저 인칭대명사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싶다’ 구문에서는 주어가 주로 일인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사유자와 인용화자가 동일하다. 따라서 ‘싶다’ 구문에서의 인칭대명사의 유지 및 전이 여부는 발화의 인용구문에 비해 파악하기 까다롭다. 또한 피인용문이 청자를 상대로 발화되는 것이 아니기에 원형식에 일인칭이나 삼인칭만을 허용한다는 제약도 존재한다.³⁴⁾ 따라서 ‘싶다’ 구문의 인칭 화시소 전이는 원형식의 일인칭 혹은 삼인칭을 그대로 유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싶다’의 주어가 일인칭일 때, 피인용문의 일인칭은 원사유자의 관점에서든, 인용화자의 관점에서든 항상 일인칭으로 나타난다. 제한적으로 ‘싶다’의 주어에 비일인칭 주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상위문 주어를 지시하는 일인칭이 사용되어도 화시소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어에서는 일인칭의 ‘나’가 인용구문과 상관없이 다른 이의 시점에서 감정이입되어 ‘언급(mention)’된 것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반드시 원사유자의 화시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문숙영 2012: 245-246, 2018: 116-117).

34) 사유의 원형식을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는 독백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단독적 장면이라면 아래의 발화는 모두 어색하다.

- i. *년 도대체 그게 무슨 꼴이람?
- ii. *네가 그때 카드가 있었던가? (이상 전후민 2015: 22)

- (11) ㄱ. 이수근 씨, 내가 생각하는 내_i 단점은 뭐예요?
 ㄴ. 솔직히 김규동 씨, 내가 내 전공 분야만 잘 알지 그 밖의 시사문제는 잘 몰라서 실수를 했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문숙영 2012: 245)

(11)은 ‘이수근 씨’와 ‘김규동 씨’의 입장으로 ‘나’가 사용되었고, 이때에는 원화자(또는 원사유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11 ㄱ)은 인용구문이 아님에도 ‘나’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인용구문의 화시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싶다’ 구문에서 일인칭이 ‘언급’되는 예는 쉽게 찾을 수 있다.

- (12) ㄱ. 그들은 내가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대요.
 ㄴ. 그 사람들은 나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은 무시해버립니다.
 ㄷ.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겠나 싶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원형식의 삼인칭의 유지 여부는 지시사 ‘저’나 ‘이’가 포함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지시사 ‘그’가 포함된 경우, 간접인용 구문에서도 ‘그’로 나타날 수 있기에 화시소가 유지된 것인지 전이된 것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시소의 유지는 인칭대명사 외에도 지시사와 시간 및 공간 화시소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3) ㄱ. 어떤 친구는 이상하게 어~ 재는 왜 저렇게 많이 변했지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싶었어.
 ㄷ. 어제는 우리 딸 픽업하는 날이었어요. 픽업하는 내내 기지개를 엄청 자주 켜는 게 오늘 참 이상하네 싶었는데 그날 어린이집에서 체조 교실이 있었더라구요.
 ㄹ. 그 예능을 보면서 어 저기 나오는 일반인들 엄청 추억되고 재밌겠다 싶었어.

(13)의 ‘재’, ‘이거’, ‘오늘’, ‘저기’는 모두 원사유자가 존재하는 시·공간의 맞춰서 사용된 것이다. 만약 인용화자가 속하는 시·공간에 맞춰 전이된다면 각각 ‘개’, ‘그거’, ‘어제’, ‘거기’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싶다’ 구문에서 화시소가 유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싶다’ 구문은 화시소가 원사유자의 관점에서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1.3. 조각문 및 표현소의 사용

직접인용 구문은 간접인용 구문에 비해 피인용문 형식의 자유도가 매우 높다. 이는 간접인용 구문은 인용화자가 원형식을 변형하여 내용을 전달하지만, 직접인용 구문은 비교적 형식 그대로를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이필영 1995: 13). 따라서 직접인용 구문은 문장 이하의 단어나 형태소, 더 나아가 제스처와 같은 발화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것도 인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Partee 1973).

Banfield(1982: 28-37)에서는 직접인용 구문에서만 불완전한 문장(incomplete sentences)이 피인용문으로 나올 수 있고, ‘표현소(expressive)’가 피인용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불완전한 문장’은 완결된 문장의 형태를 갖추지 않거나 감탄사, 부사어, 명사구 등과 같은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이며, 이들은 ‘조각문’이라고도 한다. 구어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조각문은 화·청자가 담화 상황에서 공유하는 정보들을 생략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

‘싶다’의 피인용문에는 감탄사나 부사어가 단독으로 사용된 문장이나 필수적인 논항이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 어순이 도치된 문장이 사용될 수 있다. 먼저, 하나의 단어가 피인용문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4) ㄱ. 뒤늦게 아차 싶었지만 이미 귀는 푹러 있었어요.
 ㄴ. 영어 속어도 단어만 봤을 때는 어라 싶은 게 많은데요.
 ㄷ. 부심이 오프사이드 킷발을 들었을 때는 아이고야 싶었는데 말이죠.
 ㄹ. 저도 혹시나 싶어 지금 밖에 나갔더니 눈을 맞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
 더라고요.
 ㅁ. 행여나 싶어 한참 있다 들여다보니 자고 있었어요.

‘싶다’에 단독으로 내포될 수 있는 감탄사와 부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사유의 과정이나 결과로 인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다.

- (15) 감탄사: 아차, 아뿔싸, 어라, 아하, 아이고야, 앵, 에휴 ...
 부사: 행여나, 혹시(나), 설마 ...

직접인용 구문과 간접인용 구문을 ‘언급(mention)’과 ‘사용(use)’의 측면에서 구분하는 논의도 존재하는데(Haiman 1985: 224, Davidson 1979/2001: 79 등), 이들에서는 직접인용의 피인용문은 원형식을 지시하기 위해 ‘언급’되었고, 간접인용 구문은 원형식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싶다’ 구문에서는 직접인용 구문과 같이 감탄사나 부사가 홀로 피인용문을 구성할 수 있으나 이때 사용된 감탄사나 부사는 ‘언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원사유자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4ㄱ)에서는 ‘귀를 푹으면 안 되는데!’ 등의 사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차’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발화 인용에서는, 특히 감탄사의 경우 ‘언급’된 경우가 많다. ‘철수는 아차 라고 했어.’와 같은 문장에서 ‘아차’는 표현 효과를 위해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발화의 직접인용 구문과 사유의 직접인용 구문 모두 감탄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언급’과 ‘사용’의 측면에서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싶다’의 피인용문에 불완전한 문장과 어순이 도치된 문장이 사용

될 수 있다. (16ㄱ, 16ㄴ)은 어순이 도치된 문장이고, (16ㄷ, 16ㄹ)은 생략된 성분이 존재하는 문장이 피인용문으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모두 전형적인 간접인용 구문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형식이다.

- (16) ㄱ. 막상 복원했는데 뭐야 저게 싶은 결과물이 나오면 기대감이 훅 꺼지는 거예요.
 ㄴ. 뭐지 저 신선한 태도는 싶었어요.
 ㄷ. 나흘 전 회담을 지켜보면서 저기다 싶었겠죠.
 ㄹ. 처음에는 아유 이런 황당한 얘기가 싶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인용 구문은 피인용문에 표현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 표현소에는 감탄문, 감탄사 등이 속한다. 감탄문은 대표적으로 직접인용 구문에서만 사용 가능한 피인용문 문장 유형이다. 만약 간접인용 구문이라면 감탄문은 평서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 (17) ㄱ. Laura blurted out: 'How very nice workmen are!'.
 ㄱ'. *Laura blurted out (that) how very nice workmen were!
 ㄴ. 철수는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라고 감탄했다.
 ㄴ'. 철수는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아름답다}고 감탄했다.

'싶다' 구문은 피인용문에 감탄문이 원형식을 유지한 채로 나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종결어미 '-구나'나 '-네'를 사용한 감탄문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감탄사가 포함된 문장도 피인용문이 될 수 있다.

- (18) ㄱ. 순간 울컥하면서 우리 늦둥이 아들도 어느새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ㄴ. 아 자식이라곤 나 하난데 정말 무관심했구나 싶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ㄷ. 그러니까 여사님이 어머 우리 남편이 없네 싶어서 즉시 성당을 달려 나와서 우리 남편 어딴어요라고 물었어요.

- (19) ㄱ. 아~ 나 되게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왜 이러나 싶기도 해요.
 ㄴ. 어? 훌랑 타 버리면 어찌려고 저러나 싶지요?
 ㄷ. 아이고 나 죽었다 싶었던 이백이 백제성에 가가지고 사면령을 받으
 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싶다’ 구문에는 직접인용 구문에 전용되는 조각문
 형식의 피인용문과 표현소가 포함된 피인용문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4. 억양과 휴지

직접인용 구문은 간접인용 구문과 달리 피인용문에 억양이 실리고 휴지
 가 개재될 수 있다(이필영 1993: 20, 신지연 1998 175 등). 박재연(1999)
 에서는 ‘싶다’의 피인용문에 다음과 같이 수행 억양이 걸릴 수 있음을 지
 적하였다.

- (20) ㄱ. 영희가 집에 없나(\↗) # 싶어서 그냥 갔지.
 ㄴ. 그래서 영희가 안 왔구나(\↗) # 싶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는 억양을, #은 휴지를 보인 것이다.)
 (박재연 1999: 162)

본고에서 사용한 말뭉치에서는 억양과 휴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싶다’ 구문에서의 억양과 휴지의 사용 여부를 정확하게 논의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억양과 휴지가 사용될 수 있는 문장들이 ‘싶다’ 구문에
 피인용문으로 나타날 수 있음은 분명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모
 든 ‘싶다’ 구문에 억양과 휴지가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억양이
 실현되거나 휴지가 개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존재함을 보이고자
 한다.

첫째, 피인용문이 수사의문문으로 나타날 때는 억양과 휴지가 사용된다.

수사의문문은 수행 억양 없이 표면구조만으로는 일반적인 의문문과의 구별이 어렵다. 따라서 ‘싶다’ 구문에 수사의문문이 나타날 때는 억양과 휴지가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21) ㄱ.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수다쟁이였어 싶을 정도로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ㄴ. 그 모습을 보고 어찌 저렇게 이쁠까 싶었어요.

둘째, 피인용문에 감탄사나 담화표지가 사용될 때 억양과 휴지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감탄사나 부사(어)가 단독으로 피인용문을 형성하여 ‘싶다’와 함께 하나의 구문처럼 사용되는 경우 수행 억양과 휴지가 사용되지 않기도 한다.

(22) ㄱ. 아~ 나 되게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왜 이러나 싶기도 해요.

ㄴ. 그런 것들을 꼭 감안해서 봐도 어라 싶었어요.

ㄷ. 이 정도는 뭐 싶은 이런 거마저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의 경우에서도 억양과 휴지는 사용될 수 있지만, 위의 경우들에서는 피인용문에 억양과 휴지가 사용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교적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싶다’의 피인용문에 억양과 휴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인용문 문말어미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르까, -다, -나, -ㄴ가, -구나’ 등은 억양이나 휴지 없이 바로 ‘싶다’와 연결될 수 있기도 하다. 이것이 ‘싶다’의 간접인용 구문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인지, 혹은 사유 인용 자체가 발화 인용과 달리 직접인용 구문에서도 억양과 휴지가 그다지 필수적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3.2. 간접인용 구문적 특징

3.2.1. 화시소의 전이

간접 인용구문의 경우 원형식의 화시소가 인용화자의 관점에 맞춰서 전이를 겪는다. 3.1.2.에서 살펴보았듯이 ‘싶다’ 구문은 인칭 대명사, 시간 및 공간 화시소와 지시사 등이 원사유자의 관점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싶다’ 구문에서 화시소의 유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싶다’의 주어가 이인칭 혹은 삼인칭으로 나올 때 원형식에서 일인칭이 ‘자기’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박재연 1999: 169, 박한기 2009: 70 등).

- (23) ㄱ. 그들은 이번 일은 자기가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싶어 억울하다고 합니다.
ㄴ. 자기가 불편하다 싶은 것들은 다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ㄷ. 철수는 자기 동생이 이기겠구나 싶겠다. (박재연 1999: 169)

뿐만 아니라 시간·공간 화시소나 지시사 등도 간혹 인용 화자의 시점으로 전이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24ㄱ)에서는 ‘오늘’이, (24ㄴ)에서는 ‘거기’가 인용화자의 관점에서 사용되었다.

- (24) ㄱ. 어제는 오늘쯤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안 오더라고요.
ㄴ. 어젯밤 12시경까지 두 시간 정도 읽었으나 두 시간이 넘어가자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거기까지가 한계로구나 싶었다.

만약 (24)의 화시소가 유지되었다면, 각각 ‘내일’, ‘여기’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화시소가 인용화자의 관점에서 전이되어 있고 이는 간접인용 형식의 특징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4)는 모두 문장종결법이 중화되지 않은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간

접인용 구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직접인용 형식에 화시소가 부분적으로 전이되어 인용화자의 관점이 개입되는 것은 ‘싶다’ 구문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다른 인용구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채숙희 2013, 문숙영 2012ㄴ 참조).

- (25) ㄱ. 이걸 고르면서 나를 생각했겠구나.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생각했겠구나.
나.
ㄴ. 개는 뭘 좋아할까?

(채숙희 2013: 43)

(25ㄱ)의 두 번째 문장의 피인용문의 원형식은 (25ㄴ)으로 상정될 수 있는데, 이때 ‘개’가 인용화자의 관점에서 ‘나’로 전이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중화되지 않은 종결어미인 ‘-ㄴ까’가 사용되고 있다. 채숙희(2013: 41-43)에서는 이와 같이 문장종결법은 직접인용 구문처럼 제한없이 나타날 수 있으면서도 화시소가 간접인용 구문처럼 전이되는 구문을 ‘반간접인용(semi-indirect reports)’이라고 정의하였다. 해당 정의를 따른다면, (24)는 반간접인용 구문에 속할 수 있다.

(24)와 같은 경우는 화시소가 전이되었지만, 유지된 경우도 비문이 아니다. 그러나 ‘싶다’ 구문에서는 화시소가 전이되어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피인용문에서 지칭되는 인물이 현재의 청자인 경우에 ‘싶다’ 구문의 인칭 화시소는 전이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26) ㄱ. (철수에게) 어제는 {너/??철수}를 빼먹었나 싶었는데 오늘 명단을 보니 아니더라구.
ㄱ'. {*너/철수}를 빼먹었나?
ㄴ. (영희에게) 잠깐 봐도 {너/??영희}구나 싶더라!
ㄴ'. {*너/영희}구나.

(26ㄱ, 26ㄴ)에 대응하는 원형식은 각각 (26ㄱ', 26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사유는 청자를 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형식에서 이인칭이 사용될

수 없으나, ‘싶다’ 구문에서는 이인칭으로 전이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전이는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 원형식대로 ‘철수’나 ‘영희’가 사용되면 어색해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전후민(2015: 26-27)에서는 ‘싶다’ 구문을 간접인용 구문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Evans(2013: 74-77)에 따르면, 많은 언어가 직접인용 구문이라고 생각되는 구문에서 다른 화시소는 유지된 채 피인용문의 이인칭 대명사가 현재의 청자를 지시하는 현상이 발견된다고 한다. Evans는 이를 ‘이인칭 자성(second person magnetism)’이라고 칭하였다. 따라서 (26)과 같은 현상은 ‘이인칭 자성’ 현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어는 발화의 인용에서 ‘이인칭 자성’ 현상은 필수적이지 않다. 직접인용 형식에서 현재의 청자가 이인칭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표준으로(canonical) 생각되기 때문이다.

(27) ㄱ. (철수에게) 영철이가 어제 짝꿍한테 “내가 {철수/??너}를 빼먹었나?”라고 물었어.

ㄴ. (영희에게) 어제 내 동생한테 네 뒷모습을 보고 “잠깐 봐도 {영희/??너}구나”라고 했어.

(27)은 모두 발화의 직접인용 구문인데 이들 모두 당시의 발화 그대로 ‘철수’, ‘영희’로 유지되는 편이 전형적인 직접인용 구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cGregor(2021)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언어들을 대상으로 사유 인용구문을 조사하면서, 이들 언어에서 사유 인용구문이 영어의 직접인용 구문과 비슷한 형식을 띠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인칭 화시소의 전이에 있어서 발화의 직접인용 구문은 모든 세 인칭이 유지되지만, 사유의 직접인용 구문에서는 이인칭의 경우 거의 항상 현재의 청자를 가리킨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하였다(McGregor 2021: 6-7). 이는 한국어의 ‘싶다’ 구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사유의 경우 원형식을 상정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현장의 담화 참여자에 의해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싶다’ 구문에서는 부분적으로 화시소가 인용화자의 관점으로 전이된 예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반간접인용 구문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피인용문에 현재의 청자가 나타나면 이인칭으로 화시소가 전이되는 편이 자연스럽다.

3.2.2. 간접인용 어미 ‘-다’의 사용

‘-다’는 ‘싶다’ 구문에서 ‘-르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인용문 종결어미이다. ‘-다’는 어떠한 양태 의미를 명세화하지 않기 때문에 평서문 종결어미 중에서도 가장 무표적이라고 생각되는 종결어미이다. ‘-다’는 ‘-어’와 더불어 화자의 짐작이나 상념이 내포되지 않아 어휘적 의미 없이 문법적 기능만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한다(한길 1991).

그러나 Lee(1991: 133)에서는 이러한 무표적인 문어체의 ‘-다₁’과 구어체에서 사용되는 ‘-다₂’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⁵⁾ 이에 따르면, ‘-다₂’는 증거성 표지로서 새로 얻게 된 정보를 전달하고, 화자의 흥미를 유발한 정보를 보고할 때 사용된다. 박재연(2013)에서는 ‘-다₂’가 ‘-어’보다는 “비교적 덜 내면화한 정보를 표현한다”고 하였고, 박나리(2004: 112)에서도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28) ㄱ. (심마니가 산삼을 보자마자 놀라면서) 앗, 산삼이다.

ㄴ. (TV에서 처음 보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와, 노래 정말 잘 한다.
(박나리 2004: 100)

(28)은 모두 구어체에서 ‘-다₂’가 사용된 예문이다. 이들은 모두 발화시의 덜 내면화된 정보를 표현한다.

만약 직접인용 구문에서 ‘-다’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발화에서 사용되는 구어체의 ‘-다₂’일 것이다. 다음은 피인용문에 종결어미 ‘-다₂’가 사용되었

35) 권재일(2004: 17-25)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어체에서는 어말어미 ‘-다’가 가장 빈도가 높지만, 구어체에서는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음을 밝혔다.

다고 볼 수 있는 예문이다. 이들은 모두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한 덜 내면화한 정보를 표현한다.

- (29) ㄱ. 연애는 정말 이거다 싶을 때 시작해야 해요.
ㄴ. 첫눈에 딱 이 애다 싶었어요?

그러나 ‘싶다’의 피인용문 중 ‘-다₁’에 가까운 쓰임을 보이는 것들도 존재한다. 만약 문어체의 ‘-다₁’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간접인용 어미인 ‘-다고’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₁’가 마찬가지로 ‘-다고’는 문장이 나타내는 양태나 정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인용 구문은 당시의 사유를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간접인용 구문은 명제 내용만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필영(1995: 15-16)에서도 직접인용 구문은 ‘구체적 문장’을, 간접인용 구문은 구체적인 문맥을 가지지 않는 ‘추상적 문장’이라고 하였다. 이때 피인용문은 특별한 양태나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며, 비교적 무표적으로 인용화자의 사유를 서술한다. 다음은 피인용문에 간접인용 어미 ‘-다’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예문들이다.

- (30) ㄱ.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고 자기는 거의 착취를 당했다 싶으신 거죠.
ㄴ. 저는 이분이 참 높은 데를 좋아하는 분이다 싶은 게 저번 호텔도 신주쿠에 있는 플라자랑 같은 급으로 짓고 싶더라고 하셨더라고요.
ㄷ. 아이가 너무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다 싶어서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조금 신경 썼어요.

실제로 구어에서는 인용표지 ‘라고’, ‘라는’이 사용되어도 간접인용 어미가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은 박미은(2021: 100-101)에서 제시한 예인데, 이들은 각각 간접인용 어미라고 볼 수 있는 ‘-다’, ‘-냐’, ‘-자’, ‘-라’가 사용되었다.

- (31) ㄱ. 외국 학습자들이 실패한 어떤 오류, 어~ 실패해서 나타난 오류들 오

류들을, 모국어 화자들 자신조차도, 문법적으로 교정시키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 ㄴ. 비피에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 초에 몇 비트가 필요한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의 음절을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 ㄷ. 실제로 김국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바로 바로 못 알아들었던 말이야. 그 못 알아들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그것을 공유하면서 웃어 보자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지.
- ㄹ. 그 문화를 보는 틀을 다른 문화에서 가져오지 말고, 그 자체로, 그 문화 자체로, 이해하라라는 문화상대주의 입장이 있는데.

(박미은 2021: 100-101)

이들은 모두 “전형적인 직접인용 구문의 피인용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화자의 머릿속에 있을 만한 체계문(system-sentence)과 유사(박미은 2021: 100)”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30)에 사용된 피인용문 또한 명제 내용을 무표적으로 전달하는 간접인용 구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이들 문장을 완전히 간접인용 구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사유 인용구문은 본질 자체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문 자체가 원형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직접인용 구문으로도 볼 수 있다.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구분이 주로 발화 인용을 기준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0)과 같은 ‘-다₁’의 사용을 간접인용 구문적 특징에 포함한다.

3.3. 제3의 인용구문적 성격: 인용표지 ‘∅’의 사용

본절에서는 ‘싶다’ 구문의 인용구문적 성격 중 직접인용 구문으로도, 간접인용 구문으로도 볼 수 없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는 피인용문과 인용술어 사이에 인용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직접인용 구문의 경우 ‘(이)라고’, ‘하고’ 등이 사용되고, 간접인용 구문의 경우 인용표지 ‘고’가 피인용문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다고, -라고, -자고, -냐고’ 등으로 나타난다(남기심 1973, 김상대 1977 등). 이에 더해 이 필영(1995: 38-39), 채숙희(2013)은 인용표지 ‘라’를 추가하기도 하였다.³⁶⁾ 그러나 구어에서는 어떤 인용표지를 사용하는지는 직접인용 구문과 간접인용 구문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

- (32) ㄱ. 개학을 했다. 선생님이 딱 그러는 거야. “아휴, 우리 세현이가 내가 제일 보구 싶었나 보다.”ㄴ 이러는 거야.
ㄴ. 주제별 강의 계획 보시면요, 인제 제가 뭐 대체적으로 이런 대화의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대화 방법을 다룰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채숙희 2013: 29)

(32 ㄱ)의 피인용문은 감탄사 ‘아휴’나 인칭 대명사 ‘우리, 나’ 등을 보면 직접인용 구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용표지 ‘고’가 사용되었고, (32 ㄴ)은 상대높임이 실현되지 않은 ‘-다’로 종결된 것을 보아 간접인용 구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고’가 사용되었다.

나아가 인용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인용구문은 (33)과 같이 인용표지가 없어도 자연스럽다.

- (33) ㄱ. 개학을 했다. 선생님이 딱 그러는 거야. “아휴, 우리 세현이가 내가 제일 보구 싶었나 보다.” ∅ 이러는 거야.
ㄴ. 주제별 강의 계획 보시면요, 인제 제가 뭐 대체적으로 이런 대화의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대화 방법을 다룰 것이다 설명을 드렸는데…

인용표지 자체가 직접인용 구문과 간접인용 구문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제가 될 수는 없지만, 한국어는 직접인용 구문이든 간접인용 구문이든 인

36) 인용표지 ‘라’는 많은 경우 ‘라고’로 대체될 수 있다. ‘라고’에 비해 ‘라’가 쓰이면 문어적, 의고적 느낌을 준다(채숙희 2013: 149).

i. 철수는 제가 시인입니다 {라고, 라} 했다. (이필영 1995: 39)

용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발화 인용구문이 아닌 사유 인용구문도 마찬가지로 인용표지가 나타날 수 있다.

- (34) ㄱ. 약간 열만 좀 난다 싶으면은 이거 사스 아니야 하고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ㄴ. 이 영화는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채숙희(2013: 150-152)에서는 한국어 인용구문 가운데 어떠한 인용표지도 사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인용표지 ‘Ø’가 사용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33ㄱ)의 경우 어떠한 인용표지도 사용될 수 없기에 인용표지 ‘Ø’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33ㄴ)은 ‘라고’, ‘고’ 등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인용표지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싶다’ 구문은 인용구문임에도 불구하고 인용표지가 사용될 수 없다.

- (35) ㄱ.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고, *라, *고, Ø} 싶어요.
ㄴ. 예전보다 제동이 안 되네 {*라고, *하고, *라, *고, Ø} 싶으시면 브레이크 패드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싶다’ 외에도 인용표지가 사용될 수 없는 인용구문은 포괄 인용동사가 사용된 경우이다. 포괄 인용동사에는 ‘하다, 그러다, 이러다’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 동사는 다른 인용동사들을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채숙희(2013)에서는 이들을 ‘대동사’ 대신 ‘포괄동사’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어휘의미적 구조상 상의어에 해당하는 동사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하의어와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 (36) ㄱ. 우즈가 위자료로 7억5천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지적했다, 했다}.
- ㄴ. “이런 날씨가 뭐가 추울까?” {생각되시겠지만, 이러시겠지만, 그러시겠지만} 호주에 오래 살다 보면 이런 날씨는 아침저녁으로 체감 온도가 겨울처럼 느껴진답니다.

(채숙희 2013: 100, 110)

‘싶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유 동사가 사용되는 자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유 동사의 상의어에 해당하는 포괄 인용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 (37) ㄱ. 태풍이 일찍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생각됩니다/추측해 봅니다}.
- ㄴ. 과연 저 말이 사실인가 {싶어요/의심돼요}.

이들 포괄 인용용언은 사유를 인용할 때 인용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박재연(1999)에서는 ‘하다’가 사유를 인용할 경우 인용표지가 사용될 수 없음을, 채숙희(2013: 116)에서는 ‘이러다, 그러다’도 마찬가지로 사유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표지가 사용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인용표지가 사용되면 발화의 인용으로 해석된다. ‘싶다’는 포괄 인용용언 중 유일하게 사유만을 인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용표지가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38) ㄱ. 영희는 이제 서울에 도착하지 않았는가 {*하고, *라고} 한다. (박재연 1999: 176)
- ㄴ. 근데 또 먹더라구요. 그래서 “어, 먹나 보다.” {*고, *라고, *하고, *라} 그러구 나머지를 먹었어요. (채숙희 2013: 151)
- ㄷ. 내가 어린 마음에두 “재가 쯤만 더 크면 나보다 더 똑똑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라, ∅} 막 이러면서 되게 시기하구 이랬는데. (채숙희 2013: 117)

한편, 이현희(1982)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는 사유 구문의 상위문 용언에 따라 ‘햏야’가 개재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모르다, 너기다, 식브다, 스랑햏다’ 등은 내포문의 종결어미와 상위문 용언 사이에 ‘햏야’가 개재되지 않지만, ‘시름햏다, 의심햏다, 저햏다, 두리다, 슯다’ 등의 경우 ‘햏야’가 개재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이현희(1994: 295)에서는 ‘햏야’가 개재되지 않는 까닭은 해당 용언 그 자체가 직접 사유함을 뜻하고, 내포문이 이러한 사유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햏야’가 개재될 수 있는 경우 ‘햏야’가 ‘너기다’의 대동사형이며, 이때는 내포문의 사유를 전제로 하여 용언이 나타내는 또 다른 사유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39) ㄱ. 노푼 ㄱ술히 도로 도라오리라 스랑햏다니(高秋念却廻) (두시언해 8: 40)

ㄴ. 太子 | 아바뉘 勅書 | 신가 너겨 (석보상절 24: 51)

ㄷ. ㅁ츄맨 뉘어뇨 햏야 疑心호리니(必竟엔 他是阿誰어뇨 호리니)

(몽산법어언해 22)

(이현희 1994: 298, 304, 317 재인용)

(39ㄱ, 39ㄴ)의 ‘스랑햏다’와 ‘너기다’의 경우 ‘햏야’가 개재되지 않지만, (39ㄷ)의 ‘疑心햏다’ 경우 ‘햏야’가 개재되었다. 이현희(1994: 317-318)에 따르면, ‘疑心’은 사유를 전제로 하고 그 후에 의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너기다’의 대동사형인 ‘햏야’가 개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햏야’를 지금의 인용표지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³⁷⁾, 이들 자료를 통해 적어도 ‘싫다’가 이전부터 유표적인 의미를 가지는 다른 동사와는 다르게 ‘햏야’라는 요소를 개재할 수 없었고, 이는 ‘싫다’뿐 아니

37) 인용표지 ‘라고’, ‘고’의 기원을 ‘햏고’로 보는 견해가 있다(권재일 1998: 75-76, 윤혜영 2011: 116-117). 권재일(1998: 76)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용 표지 ‘-고’의 생성을 도식화하였다.

> ‘햏고’의 서술기능 약화

> ‘햏고’의 형태 약화(햏고>코>고)

> ‘-고’의 인용 표지로 기능 보편화, 문법화 완성

라 다른 비교적 포괄적인 사유를 나타내는 동사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포괄 인용용언은 사유를 인용할 때 인용표지 'Ø'를 사용하고, '싫다'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싫다'가 포괄 인용형용사이기 때문이다.³⁸⁾

38) 언어 유형적으로 인용표지의 사용 여부는 직접인용 구문과 간접인용 구문을 구분하는 기제로 사용되기도 한다(Aikhenvald 2008: 413, Jäger 2007: 16 등). 간접인용 구문에 인용표지(혹은 보문자)가 사용되는 빈도가 비교적 더 높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직접인용 구문과 간접인용 구문에 모두 인용표지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인용표지가 사용될 수 없다는 특징을 직접인용도 간접인용도 아닌 제3의 인용구문적 특징으로 분류하였다.

4. ‘싶다’의 어휘·의미적 특징과 특수 기능

인용용언은 인용의 대상뿐 아니라 인용의 방식, 피인용문 외의 논항과 인용표지 등 인용구문의 제반 양상을 좌우한다(채숙희 2013: 61). 인용용언마다 개별적으로 보이는 어휘·의미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 인용용언이 구성하는 인용구문의 특징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 장에서는 ‘싶다’의 어휘 및 의미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싶다’가 다른 인용용언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펴볼 것이며 더불어 ‘싶다’가 관형사절에서 보이는 특수한 기능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4.1. ‘싶다’의 어휘적 특징

4.1.1. ‘싶다’의 품사

인용구문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인용동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이필영 1995, 한송화 1996, 박재연 2012, 채숙희 2013 등). 이는 인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일어날 발화 혹은 사유를 보고하기에 일반적으로 [+동작성]의 자질을 가지는 동사가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일 것이다.³⁹⁾ 그러나 ‘싶다’의 품사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이는 ‘싶다’의 활용형을 통해 알 수 있다. 대체로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다음과 같은 형태·통사적 특징을 보인다.

39) 한국어에서는 관점에 따라 ‘보고’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동사를 인용동사에 포함하기도 한다. 채숙희(2013: 49-50)에서는 ‘가르치다, 전화하다, 시키다, 화내다’와 같이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그 행위의 실현수단으로써 피인용문이 올 수 있는 것들도 인용동사로 보았다.

i. 누가 때리면 너도 두들겨 패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

한편, 이 경우에도 행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여전히 동사임은 변하지 않는다.

- (1) ㄱ. 형용사는 현재형 선어말어미 ‘-느-’와 보조용언 ‘-고 있-’과 결합할 수 없다.
- ㄴ. 형용사는 관형형 어미 ‘-는’과 결합하지 않는다.
- ㄷ.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형 종결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
- ㄹ. 형용사는 ‘-러, -려고, -고자’ 등 목적 및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

(1)의 기준을 ‘싶다’는 모두 충족하기에, ‘싶다’는 형용사이다.⁴⁰⁾

- (2) ㄱ. 이 길이 내 길이다 {싶다/*싶는다/*싶고 있다}.
- ㄴ. 이 길이 내 길이다 {싶은/*싶는} 사람만 남았어요.
- ㄷ. 이 길이 내 길이다 {싶다./싶니?/*싶어라!/*싶자.}
- ㄹ. 이 길이 내 길이다 {싶어서/*싶으러/*싶으려고/*싶고자} 노력했다.

형용사 ‘싶다’는 심리형용사와 많은 통사적 특징을 공유한다. 심리형용사는 주어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징을 가진다(김흥수 1989, 유현경 1998: 59-78 등 참조).

- (3) ㄱ. 경험주(experiencer)가 주어가 되며, 두 자리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
- ㄴ. 경험주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감각, 판단 등을 서술하기에 주어는 평서문일 경우에 화자와 일치해야 하고 의문문의 경우 청자와 일치해야 한다.
- ㄴ’. 이때 인칭제약은 과거시제의 사용, ‘-어 하다’ 구문의 사용, 추측이나 전언 표지의 사용, 시점의 옮김 등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
- ㄷ. 일인칭 주어와 [과거 지각] 및 [의외성]의 의미를 가지는 선어말어미 ‘-더-’가 호응할 수 있다.

먼저, 심리형용사는 (4)처럼 경험주를 주어로 가지며, 두 개의 논항을 요

40) 이와 관련하여 이기문(1991: 117-119)과 김양진(2006)에서는 고대 한국어에 어간 ‘식-’이 존재하였다고 상정하고, ‘식브다’는 ‘식-’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붙어 형용사가 된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구할 수 있다. 동일하게 ‘싶다’는 경험주를 주어로 가지며, 주어와 피인용문, 총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한다. 이때 주어에는 화제표지 ‘은/는’이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5).

- (4) ㄱ. 나는 집에 혼자 남아있기가 무서웠다.
- ㄴ. 나는 이런 수빈이가 측은했고 그래서 더욱 할머니에 대해 분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상 유현경 1998: 81)
- (5) ㄱ. {나는/*내가}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
- ㄴ. {저희는/*저희가} 이 클래스를 듣기 잘했다 싶었어요.

또한 ‘싶다’ 구문은 평서문일 때는 주어가 일인칭으로, 의문문일 때는 주어가 이인칭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는 심리형용사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세계를 서술하는 ‘사적 술어(private predicate)’ 전반이 가지는 인칭 제약이다.⁴¹⁾ Yang(1972)에서는 이를 ‘동일-주어 제약(Equi-Subject Constraint)’이라고 하였다.

- (6) ㄱ.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 ㄴ. *너는 한국에 가고 싶다.
- ㄷ. *철수는 한국에 가고 싶다.

(Yang 1972: 161)

‘-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희망]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 관한 것이므로 ‘동일-주어 제약’이 가해진다. 마찬가지로 ‘싶다’는 개인의 내면세계인 사유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동일-주어 제약’에 따른다.

- (7) ㄱ. {나는/*너는/*철수는} 이제 다 끝났구나 싶어.
- ㄴ. {너도/*나도/*철수도} 솔직히 아까 케이크 사이즈 너무 하다 싶지?

(7ㄱ)은 평서문에서 일인칭 주어만을, (7ㄴ)은 의문문에서 이인칭 주어만을

41) 노은주(2018)에서는 ‘심리 동사’, ‘감정 형용사’, ‘감각 형용사’, ‘직접 경험 술어’, ‘경험 술어’ 등의 서술어 부류를 ‘사적 술어’라고 지칭하였다.

허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일인칭 주어일 때 ‘싶다’에 선어말어미 ‘-더-’가 결합할 수 있다. ‘-더-’는 [과거 지각] 및 [의외성]의 양태 의미를 가지는 선어말어미인데, 일인칭 주어와 잘 호응하지 않는다(장경희 1985, 박재연 2006: 152-162, 박진호 2011: 15-17 등). 이는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지각하여 의외적이라고 여긴다는 것이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 (8) ㄱ. *나는 옷을 사더라.
- ㄴ. *나는 친구를 찾더라.

그러나 심리형용사와 감각형용사를 포함하는 주관형용사의 경우 오히려 일인칭 주어일 때만 ‘-더-’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한동완(1996: 81-82)에서는 주체의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느낌은 제3자의 인식 대상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스스로의 인식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내면 세계에 대한 지각은 스스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관형용사류에서는 ‘-더-’가 일인칭과 호응한다고 할 수 있다.

- (9) ㄱ. 나는 수박이 좋더라. (박재연 2006: 160)
- ㄴ. 나는 간밤에 (몸이) 춥더라. (서정수 1977: 250)

그러나 이는 형용사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이고, 마찬가지로 주체의 내면 세계와 관련된 인지 동사는 일반적으로 일인칭 주어와 ‘-더-’와의 호응이 불가능하다.

- (10) ㄱ. 나는 ‘이 사람은 노력하는 천재구나’ (라고) {생각해/*생각하더라}.
- ㄴ. 나는 내일 비가 올 거라고 {예상해/*예상하더라}.

그러나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되다’나 ‘-어지다’가 결합한 경우는 일인칭 주어와 ‘-더-’가 호응할 수 있다.

- (11) ㄱ. 저는 요즘 같은 때에 이 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되더라구요.
 ㄴ. 나는 즐거움이 느껴지더라. (임홍빈 1993/1998: 300)

이에 대해 임홍빈(1993/1998: 299-300)에서는 ‘생리적’ 혹은 ‘심리적’ 현상에 대하여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형용사나 피동 표현의 경우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작용이 행해진 뒤에 의식을 가지게 되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피동이나 수동적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인지 동사의 경우 이미 자신이 어떠한 인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식되는 상태이므로 [지각]의 의미를 가지는 ‘-더-’가 결합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형용사인 ‘싶다’는 자신의 사유 행위에 대해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인칭 주어일 때 자유롭게 ‘-더-’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 (12) ㄱ.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싶더라.
 ㄴ. (나는) 이 사람은 노력하는 천재구나 싶더라.

지금까지 ‘싶다’와 심리형용사의 유사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싶다’를 심리형용사의 일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형용사는 경험주가 ‘NP-에게’ 형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싶다’는 그럴 수 없다.

- (13) ㄱ. {나에게/나는} 그 일이 두려웠다. (유현경 1998: 63)
 ㄴ. {*나에게/나는}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

또한 심리형용사와 ‘싶다’ 모두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서술어이지만, ‘싶다’는 심리형용사와 달리 [NP₁-가 NP₂-가 Adj]의 격틀을 가지지 않는다. 심리형용사는 두 번째 논항 자리에 명사구나 명사절 등이 와야 하지만 ‘싶다’ 구문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항상 피인용문을 요구한다.

- (14) ㄱ. 나는 영희가 믿음직스러웠다. [명사]
 ㄴ. 나는 소년과 헤어지기가 싫었다. [명사절] (유현경 1998: 81)
 ㄷ. *나는 영희가 싶다.
 ㄹ. 나는 [영희가 이미 떠난 게 아닌가] 싫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싶다’의 품사는 형용사로 심리형용사처럼 주어의 내면에 대한 서술을 하지만, 인용구문에 전용되기에 인용형용사로 분류되어야 한다.

4.1.2. ‘싶다’의 논항구조

인용용언은 대부분 명사구나 명사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비인용 용언으로서의 기능을 겸할 수 있다. 예컨대 ‘말하다’나 ‘생각하다’는 피인용문을 보문으로 취할 수 있지만, 명사구나 명사절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

- (15) ㄱ. 철수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했다.
 ㄱ'. 철수는 범인을 말했다.
 ㄱ". 철수는 그 사람이 범인인임을 말했다.
 ㄴ. 나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
 ㄴ'. 나는 범인을 생각한다.
 ㄴ". 나는 그 사람이 범인인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싶다’는 피인용문만을 요구하는 인용용언으로서만 기능하고, 명사구나 명사절을 목적어로 가질 수 없다.

- (16) ㄱ. 나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가 싶다.
 ㄴ. *나는 범인을 싶다.
 ㄷ. *나는 그 사람이 범인인 것을 싶다.

그뿐만 아니라 ‘싶다’의 피인용문은 부사어로도 대용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인용구문에서 피인용문은 부사어 ‘그렇게’로 대용될 수 있으나, ‘싶다’는 피인용문이 부사어 ‘그렇게’로 대용될 수 없다. (17ㄱ, 17ㄴ)의 ‘말하다’와 ‘생각하다’의 피인용문은 ‘그렇게’로 대용되나, (17ㄷ)의 ‘싶다’는 ‘그렇게’로 대용될 수 없다.

- (17) ㄱ. 철수가 “지금 나 아파”라고 말했어.
 ㄱ'. 철수가 그렇게 말했어.
 ㄴ. 나는 이번에는 우리가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ㄷ. 저는 역시 언니는 다르구나 싶었어요.
 ㄷ'. *저는 그렇게 싶었어요.

이를 통해 ‘싶다’는 반드시 논항으로 피인용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드시 피인용문을 논항으로 요구하고, 피인용문이 ‘그렇게’로 대용될 수 없는 것은 포괄 인용용언의 특징이다. (18ㄱ)은 목적어가 나오면 ‘하다, 그러다, 이러다’가 인용용언으로서 해석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18ㄴ)은 포괄 인용용언이 사용될 경우 피인용문이 ‘그렇게’로 대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18) ㄱ. 나는 그 사람을 {말했어/생각했어/#했어/#그랬어/#이랬어}.⁴²⁾
 ㄴ. 철수가 “지금 나 아파”(라고) {했어/그랬어/이랬어}.
 ㄴ'. 철수가 그렇게 {#했어/#그랬어/#이랬어}.

또한 ‘싶다’는 항상 피인용문 뒤에 후행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진다. 인용구문은 기본적으로 피인용문에 인용용언이 후행하는 ‘피인용문-인용용언’ 어순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이현희(1986: 13)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인용 구문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42) ‘#’은 해당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표시이다.

- (19) I. s[NP₁-X-s[NP₂-Y-V₂]-(-ㅎ)-V₁]
스승님 어마니미 이에 잇다 ㅎ야 뉘 니르더니잇고(誰道師孃在此)(월인석보 23: 84)
- II. s[NP₁-X-(V₁오디)-s[NP₂-Y-V₂]-(-ㅎ)]
이런드로 니르샤디 ‘나 업다’ ㅎ시니라(故로 曰無我 | 라) (능엄경언해 3: 34)

전자는 ‘피인용문-인용용언’ 어순으로 전형적인 한국어의 인용 구문이며, 후자는 ‘인용용언-피인용문’ 어순으로 중국어 번역 구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중세 한국어뿐 아니라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에서도 인용술어가 ‘-기를’이나 ‘-는데’와 결합한 II 형 어순이 존재한다.

- (20) ㄱ. 누구나가 다 정년이 되면 말하기를 [바빠 살아 오다보니 벌써 정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ㄴ. 순간에 판단하기를 [에라 모르겠다 그냥 꿀꺽 삼켜버리자] 하고는 다음 소식입니다 했다.

(이지영 2017: 60)

권재일(1998)에서는 (20)처럼 인용술어가 피인용문에 선행하는 유형을 [+도입절] 유형, 피인용문에 선행하지 못하는 유형을 [-도입절]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싶다’의 근대 한국어형 ‘시브다’는 [-도입절]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권재일 1998: 69, 각주 9).

- (21) ㄱ. 노병헌 이 내 근녁 식진홀가 시브도다 (일동장유가 3: 16)
ㄴ. 병환 둥도 엇지 그리 ㅎ시던고 시브더라 (한중록 3: 192)
(권재일 1998: 69 재인용)

또한 인용구문은 다음과 같이 도치된 형태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또한 ‘인용용언-피인용문’ 어순이라는 점에서 [+도입절]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을 듯하다.

- (22) ㄱ.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통 크게 너가 참아야 한다라고.
 ㄴ. 나는 얼른 되받아쳤다. 우리의 종말은 아주 느리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당신들이 지금 외면하는 그 현실이 언젠가는 당신의 현실이 될 거라고.

현대 한국어에서 ‘싶다’는 ‘-기를’이나 ‘-는데’와 결합하여 피인용문 앞에서 사용될 수 없고, 도치되어서 사용될 수도 없다. 즉, ‘싶다’는 [-도입절] 유형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 (23) ㄱ. *내가 싶기를 어우 저러면 안 되는데 했다.
 ㄴ. *내가 싶은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인형극을 보지 않을까 한다.
 ㄷ. *나는 싶었다. 인형극 하나 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는 포괄 인용동사 ‘하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통사적 특징이다. 포괄 인용동사 ‘이러다’, ‘그러다’는 [+도입절]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면, 포괄 인용동사 ‘하다’는 ‘싶다’와 같이 [-도입절] 유형으로만 나타난다. ‘이러다’는 도치된 유형으로, ‘그러다’는 ‘-기를’과 ‘-는데’가 결합한 유형과 도치된 유형 모두 나타날 수 있다.⁴³⁾

- (24) ㄱ. 방송 기자가 {그러는데/*이러는데/*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여 농성을 해야 뉴스 시간에 방영이 될 수 있대요.
 ㄴ. 주리 엄마가 {그러는데/*이러는데/*하는데} 이 매실이 매실이 아니라네요. (이상 이지영 2017: 78, ‘이러다’, ‘하다’는 필자 삽입)
 ㄷ. 부인께서 {이러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서 오시라고요. (양명희 1998: 14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싶다’는 포괄 인용용언 중 하나로 항상 피인용문을 보문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형용사이다. 이때 피인용문은 항상 인

43) 다만 ‘그러다’, ‘이러다’의 [+도입절] 형태는 모두 발화의 인용에서만 가능한 듯하다.

용용언에 선행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진다.

4.2. ‘싶다’의 의미적 특징

4.2.1. 선행 연구

많은 연구들에서 ‘싶다’ 구문에서 ‘싶다’가 가지는 의미는 사유 동사와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손세모들(1995: 155)에서는 ‘싶다’의 의미를 ‘생각하다’류로 제시하였고, 이정택(1998), 임흥빈(2018) 등에서는 기본 의미를 ‘생각되다’로 보았다. 임동훈(2021)에서도 ‘싶다’의 본래 의미를 ‘어떤 생각이 들다’라고 보았다. ‘싶다’가 사유를 인용하는 인용형용사라는 점에서, 사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싶다’의 의미 특성에 대해 논의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싶다’가 나타내는 확실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싶다’의 ‘피동성’에 대한 것이다.

먼저, ‘싶다’의 확실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차현실(1984), 변정민(2008: 240)에서는 ‘싶다’가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불확실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비슷한 논의를 엄정호(1990: 113)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싶다’의 의미를 ‘확정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보았다. 이때의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추후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불확정성’의 의미와 더불어 물증이 아닌 ‘심증’에 의한 [추측]이라는 의미가 지적되기도 하였다(김흥수 1989: 52).

둘째, ‘싶다’의 ‘피동성’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김흥수(1983)에서는 ‘싶다’의 의미를 ‘느끼-PASSIVE-다’로 보았다. ‘싶다’가 ‘피동성’을 가진다는 것은 피동성이 없는 ‘생각하다’와는 교체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생각되다’, ‘여겨지다’, ‘느껴지다’ 등과는 자연스럽게 교체된다는 것에서 찾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해당 논의에서는 ‘싶다’가 이성적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닌, ‘심리적’이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정서 표현에 가깝다고 보아 ‘느끼다’에 피동의 의미가 더해진 것이라고 보았다(김흥수 1983: 163-165).

(25) ㄱ. 어쩐지 말을 안 듣는다 싶더라.

ㄴ. 어쩐지 말을 안 듣는다 {*생각하더라/생각되더라/여겨지더라}.⁴⁴⁾

(김흥수 1983: 159, 162-163)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싶다’의 의미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4.2.2. 사유의 불확실성 표출

‘싶다’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지적된 ‘생각하다’ 및 ‘생각되다’는 사유 동사 중에서도 가장 무표적인 의미를 가지며, 사유 그 자체를 나타낸다(박재연 2012: 216). ‘생각하다’는 목적어를 취하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사유하고 있음을, 피인용문을 취하면 사유의 내용을 드러낸다.

(26) ㄱ. 철수는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다.

ㄴ. 철수는 그 사람이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4.1.2.에서 살펴보았듯이 ‘싶다’는 항상 보문을 요구하므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사유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없고, 사유의 내용만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싶다’는 ‘생각하다’가 가지는 모든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생각되다’의 경우는 어떠한가? 박재연(2012: 216)에서는 ‘생각되다’는 ‘생각하다’의 피동형이 아니며, “소극적인 사유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생각되다’는 주어로 사유자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44) 그러나 이는 일인칭 주어일 때 ‘생각하다’에 ‘-더-’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서 ‘생각하다’의 피동형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 ㄱ. 저는 그 사람이 한심하게 생각돼요.

ㄴ. 저는 그래서 그 발언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깊은 유머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되다’는 ‘생각하다’와 달리 목적어 논항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26ㄱ)과 같이 대상에 대해 어떻게 사유하는지를 나타낼 수 없고, (26ㄴ)과 같이 사유의 내용 자체만을 나타낸다.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싶다’와 동일하나, ‘생각되다’의 경우 보문에 주어의 [의도]와 관련된 내용은 나올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28)은 보문에 [의도]의 양태를 나타내는 어미인 ‘-르까’와 ‘-어야지’가 사용되었고, 이 경우 상위 용언이 ‘생각되다’로 나타나면 어색하다.

(28) ㄱ. 이번 겨울에는 썰매를 배워볼까 {*생각돼요/싶어요}.

ㄴ. 올해를 계기로 공부를 해봐야지 {*생각돼요/싶어요}.

따라서 ‘싶다’는 그 의미가 ‘생각하다’나 ‘생각되다’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싶다’는 사유의 내용을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 동사에 가까우며 이때 피인용문은 사유를 나타내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렇다면 다음 과제는 사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이 다른 인지를 나타내는 용언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장경희(1985: 15)에서는 “인지란 기억 속에 있는 정보의 종류와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고 파악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하면서, 지각하고, 알고, 기억하고, 추리하고, 사유하는 모든 과정을 인지에 포함하였다. 한편, 변정민(2001: 29)에서는 인지를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판단을 내리거나 또는 이미 얻어진 정보들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시켜 믿음을 획득하거나, 얻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정신 활동(변정민 2001: 29)”이라고 정의하며, 인지를 ‘감각’과 ‘지각’과 구분하였다.

우선, ‘인지’는 ‘감각’과 ‘지각’과 달리 항상 ‘주관성’을 포함해야 한다(변정민 2001: 18-19). 따라서 주관성을 가지지 않는, 외부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나 단순한 지각을 나타내는 피인용문은 ‘싶다’ 구문에 올 수 없다.⁴⁵⁾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인 ‘-어’, ‘-어라’는 어느 정도의 사유가 개재되어 있는 ‘-구나’와 ‘-네’와 달리 즉자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데(박진호 2011: 12-13), 이때의 ‘-어’, ‘-어라’는 ‘감각’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 ‘-어라’로 종결되는 문장은 ‘싶다’의 피인용문이 되지 못한다.

- (29) ㄱ.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바로 보이는 반응) 앓, {뜨거워/뜨거워라/?
뜨겁구나/?뜨겁네}
ㄴ. *앓 {뜨거워/뜨거워라} 싶어.⁴⁶⁾

변정민(2001)에 의하면, 인지 동사는 ‘사유’, ‘인식’, ‘판단’, ‘믿음’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사유 단계는 모든 인지 동사가 거쳐가는 단계이며,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았다. 사유 과정은 ‘앓’을 전제로 하지만, ‘인식’, ‘판단’, ‘믿음’ 단계에서만큼 확실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30)은 각각의 인지 영역 단계의 대표 어휘를 사용한 문장인데, ‘사유’ 단계가 가장 확실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30) ㄱ. 나는 철수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사유]
ㄴ. 나는 철수가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 [인식]
ㄷ. 나는 철수가 잘못했다고 판단한다. [판단]
ㄹ. 나는 철수가 잘못된 것으로 믿는다. [믿음]

45) 지각의 내용이 ‘싶다’의 피인용문이 될 수 없음은 3.1.1.의 예문 (10)을 참고할 수 있다.

46) 말뭉치에서 다음과 같이 피인용문에 감각형용사와 ‘-어라’가 결합한 예문을 찾아볼 수 있다.

i. 교육 부총리가 절대 평가제를 냈다가 아~뜨거워라 싶어서 뒤로 물러섰죠.
ii. 해당 정부도 세계 나갔다가 아 뜨거워라 싶어가지고 ...
그러나 이 경우에 ‘뜨겁다’는 실제적인 ‘감각’이 아니라 ‘아뽀싸’, ‘아차’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유’ 단계는 그 확실성이 ‘알다’, ‘판단하다’, ‘믿다’ 등으로 표현되는, 이후의 단계들보다는 떨어지는 편이기는 하나, 이것이 꼭 명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생각하다’가 가지는 명제에 대한 확실성은 ‘생각하다’ 자체가 아니라 보문 명제가 나타내는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31) ㄱ. 나는 아마 그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해.
- ㄴ. 나는 그 사람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해.

(31)은 모두 보문에 양태부사가 사용되었는데, (31ㄱ)에서는 비교적 확실성이 낮은 ‘아마’가, (31ㄴ)에서는 비교적 확실성이 높은 ‘꼭’이 사용되었다. 이때 (31ㄴ)은 (31ㄱ)보다 명제에 대한 확실성이 높는데 이는 ‘생각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양태부사의 확실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싶다’ 구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싶다’의 피인용문에 비교적 확실성이 높은 종결어미가 사용되면 이들이 꼭 명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 (32) ㄱ.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연애를 해 보다가 진짜 이때다 싶을 때 결혼하자고 얘기를 할 거 같아.
- ㄴ. 그 애가 그때 술 마시고 통화를 했을 때 주변 애들한테 왜 얘기를 안 하나 얘기를 해라 그런 식으로 나오길래 아~그래 나도 해보자 싶었어.

따라서 ‘싶다’가 불확실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사유가 인식, 판단, 믿음에 비해 가지는 불확실성인 것이지, 다른 사유동사에 비해 가지는 특징적인 불확실성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싶다’ 구문은 사유 단계가 가지는 불확실성을 표출하는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다른 인지 영역과의 관계에 비해 생기는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4.3. 관형사절에서 ‘싶다’의 특수 기능

‘싶다’는 관형사절 형태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싶다’에 결합하는 상위 10위 어말어미의 목록이다. 어말어미에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등이 포함된다.

<표7> ‘싶다’에 결합하는 어말어미 상위 10위 목록

순위	‘싶다’에 결합하는 어말어미 (빈도, 전체 대비 비율)	순위	‘싶다’에 결합하는 어말어미 (빈도, 전체 대비 비율)
1	-습니다 (9575회, 29.39%)	6	-은데(/EF) (1713, 5.26%)
2	-어요 (3765회, 11.56%)	7	-기 (1635, 5.02%)
3	-은데(/EC) (3374회, 10.36%)	8	-을 (1258, 3.86%)
4	-은 (2532, 7.77%)	9	-고 (1131, 3.47%)
5	-어서 (2342, 7.19%)	10	-으면 (884, 2.71%)

‘싶다’에 결합하는 어말어미 상위 10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과 ‘-을’이 포함된 것을 통해 ‘싶다’ 구문이 관형사절로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형사절은 ‘공백(gap)’이 존재하는 관형사절과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 관형사절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관계관형사절, 후자를 보문관형사절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한국어에서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쉽지 않다(문숙영 2012ㄱ 참조).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형사절을 관계관형사절과 보문관형사절로 나누기보다 ‘공백이 존재하는 관형사절’과 ‘공백이 부재하는 관형사절’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33) ㄱ. 내가 도형 부분이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거기부터 공부해도 돼요.
 [공백 존재]
 ㄴ.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참 잘 가르치셨네 싶은 생각이 들어. [공백 부재]

(33ㄱ)의 경우 핵명사(head noun)를 관형사절의 성분으로 볼 수 있다. 핵명사인 ‘친구’가 ‘싶다’의 주어와 공지사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33ㄴ)에서는 관형사절이 보문 명사 ‘생각’의 내용절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때 관형사절에는 핵명사가 성분으로 위치할 수 없다.

그러나 공백이 없다고 해서 관형사절이 항상 보문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아니고, 보문 명사이더라도 항상 관형사절이 해당 명사의 내용절이 되는 것도 아니다.

- (34) ㄱ. 돼지갈비집은 많았으나 [서울이라면 이 정도 식당에서는 할 만한데 싶은] 곳에서도 제육볶음이라는 메뉴는 보이지 않았다.
ㄴ. 뭐 심한 얘길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싶은] 얘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34ㄱ)의 ‘곳’은 보문 명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없는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34ㄴ)의 ‘얘기’는 보문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얘기’의 내용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싶다’라고 볼 수 없다. (34)의 ‘싶다’는 모두 ‘생각되다’로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 (35) ㄱ. 돼지갈비집은 많았으나 서울이라면 이 정도 식당에서는 할 만한데 (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제육볶음이라는 메뉴는 보이지 않았다.
ㄴ. 뭐 심한 얘길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되는 얘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공백이 없고 ‘싶다’ 구문이 보문 명사를 내용절로 수식하는 (33ㄴ)과 같은 경우에는 ‘싶다’를 다른 사유 동사로 대체할 수 없다. (36)은 ‘싶다’ 자리에 ‘생각되다’ 등의 사유 동사가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36) 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참 잘 가르치셨네 {싶은/??생각하는/??생각되는} 생각이 들어요.
ㄴ.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래도 될까 {싶은/??생각하는}

/??생각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36ㄴ)에서 ‘마음’의 내용은 “이래도 될까?”이지, “이래도 될까 싶다”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싶다’의 의미는 매우 추상화되며 피인용문이 보문 명사를 수식하도록 돕는 인용표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37)의 ‘싶다’는 사유 동사로는 대치되지 못하고, 인용표지 ‘라는’, ‘하는’ 등으로는 대치가 가능하다.

- (37) 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참 잘 가르치셨네 {싶은/라는/하는} 생각이 들어요.
- ㄴ.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래도 될까 {싶은/라는/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싶다’는 관형사형 어미 ‘-은’과의 결합만이 자연스럽게 ‘-던’, ‘-었던’ 등과의 결합은 매우 어색하다.

- (38) ㄱ.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기고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싶은/??싶던/??싶었던} 생각도 들었어요.
- ㄴ. 질문을 잘못했다 {싶은/??싶던/??싶었던} 느낌도 들었어요.
- ㄷ. 그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다가 싶던 순간에 갑자기 그 사람이 난입했어요.
- ㄹ.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아버지가 나선 겁니다.

(38ㄱ, 38ㄴ)은 인용표지 상당 기능을 하는 ‘싶다’는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해야만 자연스럽게다는 것을 보여준다. (38ㄷ, 38ㄹ)은 인용표지 상당 기능을 하지 않는 ‘싶다’는 ‘-던’이나 ‘-었던’과의 결합도 자연스럽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인용표지 상당 기능을 하는 ‘싶다’를 완전한 인용표지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는 미약하게나마 ‘싶다’가 가지는 불확실성의 의미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싶다’가 주로 수식하는 보문 명사는 ‘생각, 마

음, 느낌, 의문, 의심’ 등이다.

- (39) ㄱ. 그런 부분에서 어~ 좀 문제가 있다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ㄴ. 조선과 해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회수가 가능할까 싶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ㄷ.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랬을까 싶은 의문이 들었어요.
ㄹ. 냉동고에 한 달 이상 있으니까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 싶은 의심이 살짝 들었어.

‘싶다’는 비교적 확실성이 높은 ‘판단, 깨달음, 믿음, 확신’ 등의 보문 명사는 수식하지 못한다. 반면 인용표지 ‘라는’과 ‘하는’은 보문 명사의 확실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다. (40)은 ‘라는’과 ‘하는’은 비교적 확실성이 높은 보문 명사 ‘판단, 깨달음, 믿음, 확신’과 비교적 확실성이 낮은 보문 명사 ‘생각, 느낌’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40) ㄱ. 결과적으로 악의적인 게 아니었나 {라는/하는/??싶은} 판단이 들더라구요.
ㄴ.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하는/??싶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ㄷ. 그 틀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문제 풀이 목록을 가지고 다른 사례들도 문제가 똑같이 풀이될 것이다 {라는/하는/??싶은}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ㄹ. 작품이란 역시나 매우 개인적인 것이구나 {라는/하는/??싶은}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
ㅁ. 내가 봤을 땐 그냥 에어팟 프로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하는/싶은} 생각이 들거든.
ㅂ. 일종의 치고받는 토론을 안 해본 분이 아닌가 {라는/하는/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싶다’는 보문 명사를 수식하는 내용절로 나타날 경우, 그 의미가 거의 추상화되어 인용표지 상당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의 의미로 인해 높은 확실성을 나타내는 보문 명사와의 연결이 제한된다.

5. ‘보다’ 구문과 ‘하다’ 구문과의 비교

본장에서는 ‘싶다’ 구문과 함께 SEA 구문으로 다루어지는 ‘보다’ 구문과 ‘하다’ 구문과의 비교가 이루어진다. ‘싶다’, ‘하다’, ‘보다’ 구문은 모두 종결어미로 끝나는 용언에 후행할 수 있다.

- (1) ㄱ. 철수는 학교에 갔나 싶다.
- ㄴ. 철수는 숙제를 다 했나 보다.
- ㄷ. 철수가 그 일을 하지 않았나 한다.

(엄정호 1990: 1)

이들은 모두 보문의 시제 표지가 상위문 용언과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2) ㄱ.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나 {싶어/봐/했습니다}.
- ㄴ.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렵나 {싶어/봐/했습니다}.
- ㄷ.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려울 건가 {싶어/봐/했습니다}.

또한 (2)를 통해 이들은 많은 문맥에서 교체되어 사용되어도 문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사·의미적 유사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들을 함께 다루기도 하였다(임홍빈 1985, 엄정호 1990, 손세모들 1996, , 박재연 1999, 김강열 2021, 엄소영·이선웅 2022 등).

본장에서는 ‘싶다’와 유사한 통사·의미적 특징을 보이는 ‘보다’ 구문과 ‘하다’ 구문을 살펴보고 이들과 ‘싶다’ 구문이 가지는 차이점을 밝혀 ‘싶다’ 구문의 특징을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1. ‘보다’ 구문과의 비교

5.1.1. ‘보다’ 구문과 ‘싶다’ 구문의 통사적 차이

‘보다’ 구문은 항상 선행 용언 종결어미로 ‘-ㄴ가, -ㄹ까, -나’만을 허용한다. ‘-ㄴ가/ㄹ까/나 보다’ 구문과 ‘-ㄴ가/ㄹ까/나 싶다’ 구문은 [추측]과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중 ‘-ㄹ까 보다’, ‘-ㄹ까 싶다’ 구문만이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 (3) ㄱ. 그가 집에 갔는가 {싶다/보다}. [추측]
 ㄴ. 내가 집에 갈까 {싶다/보다}. [의도]

(임흥빈 1985: 363)

또한 일반 용언인 ‘보다’는 동사이지만, ‘보다’ 구문에서의 ‘보다’는 ‘싶다’ 구문에서처럼 형용사이다. ‘보다’와 ‘싶다’는 모두 간접의문어미인 ‘-ㄴ가, -ㄹ까, -나’와 결합할 수 있지만, 각 어미에 대한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다.

<표8> ‘보다’ 구문과 ‘싶다’ 구문에 결합하는 간접의문어미의 비율

간접의문어미	‘보다’	‘싶다’
-나	53.45%(23,643회)	17.80%(4,775회)
-ㄹ까(-을까)	23.64%(10,458회)	50.62%(13,575회)
-ㄴ가(-은가, 는가)	22.91%(10,134회)	31.58%(8,467회)
계	100%(44235회)	100%(26,817회)

‘보다’ 구문의 경우 선행 용언 종결어미로 ‘-나’가, ‘싶다’ 구문의 경우 ‘-ㄹ까’가 가장 많이 선호된다.

많은 연구에서 ‘보다’ 구문은 ‘싶다’ 구문뿐 아니라 다른 [추측]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우연적 구성에 비해 비교적 많은 통사적 제약을 지닌다는 것을 지적된 바 있다(엄정호 1990, 안주호 2005, 변정민 2008, 명정희 2018 등). 그러나 본고에서는 양태 표현 전반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지 않

고, ‘싶다’ 구문과 ‘보다’ 구문만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보다’ 구문이 ‘싶다’ 구문과 비교해서 가지는 통사적 차이점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①양태 담지자의 통사적 실현 여부, ②보문의 문장 유형, ③선어말어미 결합 제약, ④어말어미 결합 제약 등에서 통사적으로 다르다.

① 양태 담지자의 통사적 실현 여부

‘보다’ 구문은 화자의 [추측]이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추측]이나 [의도]는 화자의 것이어야 하고, [추측]의 경우 추측의 양태 담지자가 문장에 통사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반면 ‘싶다’의 사유의 주체는 문장에서 주어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환경에서는 화자가 아닌 타인의 [추측]도 나타낼 수 있다.

(4) ㄱ. 나는 국이 끓을까 싶어.

ㄴ. *나는 국이 끓는가 봐. (이상 안주호 2005: 106, 일부 수정)

ㄷ. 철수는 국이 끓을까 {싫겠네/*보겠네}.

(4ㄱ)에서 ‘싶다’의 주체가 ‘나는’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4ㄴ)에서 ‘보다’가 표현하는 [추측]의 주체가 ‘나는’으로 나타날 수 없다. (4ㄷ)에서는 해당 명제에 대한 [추측]의 담지자가 ‘철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싶다’만 가능하고, ‘보다’는 불가능하다. 이는 김지은(1998)에서 [추측]의 양태용언으로서 ‘보다’는 명제 내부의 개별 명사항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한 것과는 관련된다.

Bybee(1985)에서는 양태를 ‘화자 지향적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와 ‘동작주 지향적 양태(agent-oriented modality)’로 나눈다. 화자 지향적 양태는 양태의 담지자가 화자이고, 동작주 지향적 양태는 양태의 담지자가 동작주이다. 이 중 [추측]을 포함한 인식 양태는 가장 전형적인 화자 지향적 속성을 보인다(박재연 2006 참조). ‘보다’ 구문은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서의 양태 표지에 가깝게 문법화되었기 때문에 양

태 담지자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의도]를 나타내는 ‘-르까 보다’ 구문은 평서문에서 행위 양태의 담지자인 화자가 일인칭으로 나올 수 있다. 이는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를 모두 겸할 수 있는 ‘-겠-’과 유사하다.

- (5) ㄱ. 어제는 비가 많이 왔겠다.
- ㄱ'. 어제는 비가 많이 왔나 보다.
- ㄴ. 나는 학교에 가겠다.
- ㄴ'. 나는 학교에 갈까 보다.

‘보다’ 구문과 마찬가지로 ‘-겠-’은 [추측]을 나타낼 때에는 화자가 외현화될 수 없지만(5ㄱ, 5ㄱ'), [의도]를 나타낼 때에는 화자가 외현화될 수 있다(5ㄴ, 5ㄴ').

② 보문의 문장 유형

‘보다’ 구문의 보문은 판정의문문으로만 나타난다.⁴⁷⁾ 반면 ‘싶다’ 구문의 보문은 의문사가 존재하는 설명의문문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보다’ 구문에도 의문사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의문사는 미지향으로 해석되지 않고 부정(不定)의 의미로 해석된다(변정민 2008: 228). (6ㄷ)에서 ‘무엇’은 부정사로 해석된다.

- (6) ㄱ. 내일 비가 오나 {보다/싶다}.
- ㄴ. 빛나가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 {*보다/싶다}. (변정민 2008: 227)
- ㄷ. 영희가 무엇 하겠나 보다. (변정민 2008: 228)

또한 ‘보다’ 구문은 수사의문문 형식의 보문을 가질 수 없다. 수사의문문

47) ‘보다’ 구문을 복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문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싶다’ 구문과의 대조를 위해서 ‘보다’의 선행 명제를 잠정적으로 보문이라고 표현하였다.

은 문장이 나타내는 축자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화·청자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명제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 (7) ㄱ. 누가 영희를 이기겠어? (=영희를 아무도 이길 수 없다)
- ㄴ. 영희가 이기지 않겠어? (=영희가 이길 것이다.)

수사의문문의 일종인 부정 확인의문문은 사유 구문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식인데, 이때의 부정소는 부정의 의미를 갖지 않는 ‘잉여적 부정’으로 해석된다(김송희 2014: 90-92). 잉여적 부정이 사용되면 보문이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8) ㄱ.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걸리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 ㄴ. 이번 달 카드 값이 월급보다 많이 {나올까/나오지 않았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김송희 2014: 90)

그러나 ‘보다’ 구문에서는 부정 확인의문문은 사용될 수 없다. ‘보다’ 구문의 경우 보문이 긍정형으로 나타나면 항상 긍정의 의미를, 부정형으로 나타나면 항상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 ‘싫다’ 구문은 일반의문문과 부정 확인의문문을 모두 허용한다.⁴⁸⁾

- (9) ㄱ.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나 {보다/싫다}.
- ㄴ.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나 {보다/싫다}.

(9ㄴ)에서 ‘보다’와 달리 ‘싫다’가 사용되면 부정 확인의문문으로도, 일반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⁴⁹⁾

48) 부정 확인의문문이 사용되면 ‘보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 표지가 아니라 인용 구문이 된다. 이는 ‘보다’의 품사가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i. 오늘 밤 경기만큼은 우리 팀이 이기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49) 부정 확인의문문으로의 해석이 더 자연스러운 듯하나, 문맥과 수행역양이 주어지면 일반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부정 확인의문문이 아닌 수사의문문이 사용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싶다’ 구문만 가능하고 ‘보다’ 구문은 불가능하다.

- (10) ㄱ. 이게 무슨 짓인가 {*봐요/싫어요}.
 ㄴ. 그걸 가지고 뭘 하겠나 {*봐요/싫어요}.

‘보다’ 구문은 ‘싶다’ 구문과 달리 항상 판정의문문 형식의 보문만을 허용하고, 이때 판정의문문은 수사의문문이 아닌 일반의문문만 가능하다.

③ 선어말어미 결합 제약

‘보다’는 항상 현재 시제로만 나타난다. ‘싶다’는 현재 시제뿐 아니라 과거 시제, 미래 시제로 나타날 수 있다. 엄정호(1990: 21-22)에 따르면, ‘싶다’는 과거 시제의 ‘-었-’, 미래 및 [추측]의 ‘-겠-’, [과거 지각]의 ‘-더-’ 등이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고, ‘보다’는 선어말어미 ‘-더-’와만 결합할 수 있다.

- (11) ㄱ. 철수가 학교에 갔지 싶었다.
 ㄱ'. *철수가 학교에 갔는가 보았다.
 ㄴ. 영희는 철수가 학교에 갔겠지 싶겠다.
 ㄴ'. *영희는 철수가 학교에 갔는가 보겠다.
 ㄷ. 이젠 됐겠지 싶더라.
 ㄷ'. 철수가 학교에 갔나 보더라.

(엄정호 1990: 21-22)

‘보다’가 항상 현재로 나타나는 것은 ‘보다’ 구문이 문법 범주로서 양태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다. 전형적인 ‘화자 지향적 양태’를 표현하는 형식

i. 감기 기운이 있다고는 했는데 증상이 없는 걸 보니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나(ㄱ)# 싫어요.

은 화자의 ‘현재의’ 태도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재연 2006: 59-60).

- (12) ㄱ. *그때는 단풍이 예쁘겠었다.
ㄴ. *나는 어제 커피를 한잔 마셨을래.

(박재연 2006: 59-60)

(12)는 각각 용언에 인식 양태의 ‘-겠-’과 행위 양태의 ‘-르래’가 결합한 문장이다. (12ㄱ)은 ‘-겠-’이 과거의 추측을 표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12ㄴ)은 [의도]의 의미를 가진 ‘-르래’가 과거의 의도를 나타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이들은 모두 화자의 현재 태도만을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다’도 화자의 현재의 태도만을 나타내고 이는 ‘보다’ 구문이 전형적인 화자 지향적 양태 표지 중 하나임을 나타낸다.

한편, ‘보다’는 [추측]을 나타낼 때 ‘싶다’와 마찬가지로 ‘-더-’와 결합할 수 있다. 화자의 현재의 태도만을 표현하는 ‘보다’ 구문이 과거 지각을 나타내는 ‘-더-’와 결합하는 것은 일면 특이해 보인다. 그러나 인식양태 표지와 선어말어미 ‘-더-’의 연쇄는 ‘-겠더-’ 형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장경희(1985: 136-137)에서는 ‘-겠더-’를 과거에 “짐작의 근거를 목격한 경우”에 사용한다고 보았다. 박재연(2006: 264-266)에 따르면, ‘-겠-’에 의한 [추측]은 항상 현재의 판단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더-’가 가지는 화자의 시점을 과거 옮기는 기능으로 인해⁵⁰⁾, ‘-겠더-’는 과거의 [추측]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보다’에 ‘-더-’가 결합하면 과거에 추측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13) ㄱ. 일도 바쁘고 몸도 안 좋아서 마음이 되게 무겁나 보더라.
ㄴ. 들어 보니까 다른 프로에서도 섭외가 들어갔나 보더라구요.

(13)은 모두 선행 명제에 대한 추측을 과거의 어느 시점에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50) 최동주(1995) 참조.

ㄴ'. 나는 남들이 보고 {웃을라, 웃을세라} 불안하였다.

(박혜진 2020: 34)

한편, '보다'가 종결어미와 결합할 때는 평서형과 의문형 종결어미와만 가능하고, 명령형이나 청유형 종결어미는 불가능하다. 이는 '싶다'도 마찬가지이다.⁵³⁾ 이것은 '보다'와 '싶다'가 모두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17) ㄱ. 이번 판결은 좀 처벌이 미약한 거 아닌가 {싶어./싶니?/*싶자./*싶어라.}

ㄴ. 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시나 {봐./봐?/*보자./*보아라.}

그러나 '싶다'가 형성하는 의문문과 '보다'가 형성하는 의문문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 '싶다'에 의문형 어미가 결합하면 청자의 [추측]을 질문하는 것이나, '보다'에 의문형 어미가 결합하면 청자의 [추측]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에 의문형 어미가 결합하면, '유사의문문(pseudo-interrogative)(박재연 2005: 107-111)'으로 해석된다. 유사의문문은 평서문에 가까운 것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구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구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의문문에서 유사의문문 형태만이 가능한 양태 어미에는 '-구나', '-네' 등이 있다. '보다'도 의문형으로 나타날 때 상대방의 [추측]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측]을 상대방이 확인해주거나 수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드러낸다.

(18) ㄱ. A: 이제 같이 놀기도 어렵겠네?

B: 아마 그럴 거야.

ㄴ. A: 너는 이제 미국에 가게 되겠구나?

B: 응, 올 봄에 갈 것 같아. (이상 박재연 2005: 109-110)

ㄷ. A: 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시나 봐?

B: 응, 우리 사장님 쿨한 분이시잖아.

53) [의도]를 나타낼 때에는 평서문만 가능하다.

i. 점심에 라면 먹을까 {봐./*봐?}

(18)은 모두 유사의문문이 사용되었다. 이때 A는 B에게 정보를 구하는 질문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보다’ 구문이 의문문으로 사용된 (17ㄴ)과 (18ㄷ)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추측을 확인하는 유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17ㄱ)에서 의문문으로 사용된 ‘싶다’ 구문은 청자의 사유를 묻는 질문으로 해석된다.

5.1.2. ‘보다’ 구문과 ‘싶다’ 구문의 의미적 차이

이상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보다’ 구문은 [추측]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화된 양태 표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형식이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를 겸하는 것은 ‘-겠-’이나 ‘will’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싶다’ 구문이 나타내는 사유에도 물론 [추측]이나 [의도]가 포함될 수 있지만 ‘싶다’ 구문이 항상 [추측]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태 표지라고 보기 어렵다.

‘보다’와 ‘싶다’의 의미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주로 ‘보다’를 ‘근거 있는 추론’이라고 다룬 바 있다(임홍빈 1985, 차현실 1986, 엄정호 2005, 명정희 2018 등). 명정희(2018: 10)에 따르면, ‘보다’ 구문은 반드시 “판단자가 추측 시점에 판단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 증거는 (19ㄱ)처럼 발화 상황에 직접 지각한 증거일 수도 있지만, (19ㄴ, 19ㄷ)처럼 전언이나 다른 곳에서 보고 얻게 된 간접증거도 가능하다.

- (19) ㄱ.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경우) 비가 오나 보다. (이기갑 2006: 74)
 ㄴ. (결혼하는 소식을 들은 후) 개네 1년 뒤에는 결혼하나 봐.
 ㄷ. (아버지가 출장 가방 짐을 싸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내일 출장가 시나 봐. (이상 명정희 2018: 11)

그러나 ‘싶다’ 구문이 나타내는 [추측]에는 증거 및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근거가 있어도, 있지 않아도 사유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싶다’ 구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유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을 밝혀도 성립할 수 있지만, ‘보다’ 구문에서는 불가능하다.

- (20) ㄱ. ??딱히 근거는 없는데, 철수가 오나 봐.
 ㄴ. 딱히 근거는 없는데, 철수가 오지 않을까 싶어.

또한 ‘보다’ 구문은 증거를 토대로 한 [추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결과를 추측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명정희 2018: 11).

- (21) ㄱ.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실적이 없다면 1년 뒤에는 해고되나 봐.
 ㄴ. *엄마가 내가 산 집을 보면 좋아하시나 봐.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싶다’에는 증거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22)과 같이 논리적 결과를 추측하는 경우에도 ‘싶다’ 구문은 사용될 수 있다.

- (22) ㄱ.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실적이 없다면 1년 뒤에는 해고되지 않을까 싶어.
 ㄴ. 엄마가 내가 산 집을 보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보다’ 구문은 [추측], [의도]를 나타내는 양태 표지이며 ‘싶다’ 구문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다’ 구문의 [추측]은 직접 및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싶다’ 구문은 그러한 제약이 없다.

5.2. ‘하다’ 구문과의 비교

5.2.1. ‘하다’ 구문과 ‘싶다’ 구문의 통사적 차이

‘하다’ 구문은 ‘보다’ 구문에 비하여 ‘싶다’ 구문과 통사적으로 훨씬 유사하다. ‘보다’ 구문에서 나타났던 통사적 차이는 ‘하다’ 구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다’ 구문은 ‘하다’의 주체가 통사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23ㄱ), 보문의 문장 유형이 판정의문문(23ㄴ), 설명의문문(23ㄷ), 수사의문문(23ㄹ) 등 모두 가능하고 보문의 문말어미가 다양하게 올 수 있다(23ㅁ). 또한 ‘하다’에 다양한 선어말어미(23ㄴ) 및 어말어미(23ㅅ, 23ㅇ, 23ㅈ)가 결합할 수 있다.

- (23) ㄱ. 나는 철수가 가지 않을까 한다. (엄정호 1990: 23)
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판정의문문]
ㄷ. 소개팅 들어와도 안 하길래 왜 그러나 했지. [설명문의문문]
ㄹ. 저녁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했거든요. [수사의문문]
ㅁ. 봤던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진짜 잘생겼네 했던 사람 있었어요? [평서문]
ㄴ. 철수는 본인이 가야 하나 {하겠다, 하더라고요, 했습니다}.⁵⁴⁾
ㅅ. 어떨 때는 저걸 봤나 할 정도예요. [전성어미]
ㅇ. 철수가 가지 않았을까 {하고, 하며, 하거니와, 하지만, 하는데} [연결어미]
ㅈ. 철수가 가지 않았을까 {한다, 할까, ?해라, ?하자} [종결어미]

‘하다’ 구문과 ‘싶다’ 구문은 통사적으로 매우 유사한 것은 ‘하다’ 구문이

54) 엄정호(1990: 21-22)에서는 ‘하다’ 구문의 경우 ‘-겠-’과 ‘-더-’가 결합될 수 없다고 하였다.

i. ㄱ. 철수는 이미 죽지 않았는가 했다.

ㄴ. *철수는 이미 죽지 않았는가 하겠다.

ㄷ. *철수는 이미 죽지 않았는가 하더라. (이상 엄정호 1990: 22)

그러나 이 경우 화자가 주어인 문장이기 때문에 ‘-겠-’과 ‘-더-’의 결합이 저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어가 비일인칭이라면 ‘-겠-’과 ‘-더-’의 결합이 가능하다.

‘싶다’ 구문과 마찬가지로 인용구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다’는 발화의 인용과 사유의 인용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포괄 인용동사이며, ‘싶다’와 마찬가지로 사유를 인용할 때 인용표지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다’ 구문은 발화의 인용과 사유의 인용을 모두 겸하기는 하지만 발화를 인용하는 빈도가 더 높다. 정연주(2015: 81-82)에서는 실제 ‘하다’가 인용동사로 사용된 문장에서 발화의 인용은 650개 정도이나 사유의 인용은 3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다’ 구문이 사유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는 ‘싶다’ 자리에 ‘하다’를 넣어도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는 박재연(1999)에서 제시한 ‘하다’ 구문의 예인데, 이들은 모두 사유 인용이다. (24)의 ‘하다’는 ‘싶다’로 대체될 수 있다.

- (24) ㄱ. 드디어 철수를 만나는구나 {하며/싶어} 달려나갔다.
ㄴ. 그 정도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랴 {하는/싶은} 생각으로 그냥 승락을 해 버렸다.
ㄷ. 이 시간어야 집에 들어 왔겠지 {하여/싶어} 전화를 걸었다.
ㄹ. 아 뜨거라 {하면서/싶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왔던 거예요.
ㅁ. 그냥 잘 살고 있겠거니 {해서/싶어서} 연락을 안 한 것 뿐이야.
ㅂ. 나는 제발 이제 비가 그만 왔으면 {했다/싶었다}.

(박재연 1999: 175, ‘싶다’는 필자가 추가함.)

하지만 모든 환경에서 ‘하다’가 ‘싶다’와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하다’와 ‘싶다’의 통사적 특징에서 기인하는데, 이들의 통사적 차이점에는 크게 ①품사 상의 차이, ②현재 시제 제약, ③선택의문문 형식 피인용문 허용 여부 등이 있다.

① 품사 상의 차이

‘싶다’의 품사는 형용사이지만, ‘하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그렇기에 ‘싶다’와 결합이 불가능한 어미들이 ‘하다’와는 결합할 수 있다. ‘하다’는 현재형 선어말어미 ‘-느-’와 보조용언 ‘-고 있-’, 관형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다. 또한 ‘하다’는 명령형, 청유형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명령문과 청유문을 형성할 수 있고, [의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어야지’ 등과 결합할 수 있다.

- (25) 가. 내가 오늘 너에게 감자튀김 레시피를 알려줄까 한다.
나. 저희는 이분이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언제 그만 두나 하고 있어요.
다. 다 끝난 일이겠거니 {해라/하자}.
르. 다 끝난 일이겠거니 해야지.

‘하다’와 ‘싶다’ 모두 사유를 인용하지만, ‘하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일인칭인 경우 선어말어미 ‘-더-’가 결합할 수 없고, 비일인칭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더-’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다’는 사적 술어의 일종으로 주로 일인칭 주어를 가지기 때문에 ‘-더-’와 결합된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싶다’는 일인칭인 경우에 ‘-더-’와 결합할 수 있고, 비일인칭인 경우에 ‘-더-’와 결합할 수 없다.

- (26) 가. 나는 철수가 가지 않았을까 {싶더라/*하더라}.
나. 저는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 {싶더라구요/*하더라구요}.

이렇듯 ‘하다’와 ‘싶다’ 모두 사유를 인용하는 인용용언이지만 ‘-더-’와의 결합 양상이 다르고, 이는 품사 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② 현재 시제 제약

‘하다’ 구문은 현재 시제로 나타날 때 피인용문 문말어미가 제한된다. ‘하다’ 구문은 현재 시제로 나타날 때 간접의문어미 ‘-르까, -ㄴ가, -나’와 ‘-거니, -려니’와 ‘-었으면’ 등만이 자연스럽다.

- (27) ㄱ. 진중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ㄴ.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 이벤트를 해볼까 해요.
 ㄷ. 현장에서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참으로 가슴 벅찬 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ㄹ. 필립 보모로 들어온 게 아니구 태훈이 니 보모로 들어왔거니 해!
 ㅁ. 내성적인 것인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ㅂ.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외의 종결형이 오면 어색해지는데 이들은 모두 과거시제로 나타나면 자연스러워진다. ‘싶다’ 구문에서는 이들은 현재 시제든 과거시제든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⁵⁵⁾

- (28) ㄱ. 역시 언니는 다르구나 {^{??}해요/했어요/싫어요}.
 ㄴ. 아무래도 이 상태로는 안 되겠는데 {^{??}해/했어/싫어}.
 ㄷ. 이걸 좀 아니다 {^{??}해/했어/싫어}.

또한 (29)와 같이 ‘하다’ 구문에서 피인용문이 간접의문어미로 종결되어 [추측]을 나타낼 때는 주로 피인용문이 부정소가 있는 부정 확인의문문 형태여야 한다.⁵⁶⁾ 엄정호(1990: 16)에서도 ‘한다’로 나타나는 경우 자연스러

55) 이들은 모두 진행상인 ‘-고 있-’이 결합되면 비교적 자연스러워진다.

56) [의도]의 의미일 때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 i. 당분간은 시나리오나 만들까 해.
- ii. 며칠 바람이나 쐬고 올까 해.

운 문장은 선행문장이 부정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⁵⁷⁾

- (29) ㄱ. ?철수는 이제 죽나 한다.
 ㄱ'. 철수는 죽지 않았나 한다.
 ㄴ. ?철수는 이제 죽는가 한다.
 ㄴ'. 철수는 죽은 것이 아닌가 한다.
 ㄴ". 철수는 죽은 것이 아닐까 한다.

(엄정호 1990: 16)

반면, '싶다' 구문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없다. 즉, 피인용문에 부정소가 있는 의문문과 없는 의문문 모두 허용한다.

- (30) ㄱ. 짐이 많지 않은가 싶다.
 ㄴ. 짐이 많은가 싶다.

(김송희 2014: 101)

현재 시제로 나타나는 '하다'의 경우 인용의 의미보다 '부정소+간접의문 어미+하다'가 덩어리째로 [추측]의 의미를, '-르까+하다'가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③ 선택의문문 형식 피인용문의 허용 여부

'하다' 구문은 피인용문으로 선택의문문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다. 선택의문문(alternative question)은 화자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의문문이다. 판정의문문과 달리 가부 응답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응답 집합이 개방적이지 않고 폐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택의문문은 가부

57) 말뭉치에서 '-ㄴ가 하다'가 현재 시제일 때 피인용문이 긍정의문문인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i. 우리에게 측은지심은 인지상정인가 합니다.

선택의문문과 개별선택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다(이현희 1982).⁵⁸⁾ (31ㄱ)은 가부선택의문문이고, (31ㄴ)은 개별선택의문문이다.

- (31) ㄱ. 회의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ㄴ. 2차로 노래방 갈래, 호프집 갈래?

(임동훈 2011: 341)

선택의문문은 상관적 장면뿐 아니라 단독적 장면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선택의문문은 자문으로서 나타나는데, 이때 화자는 선택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표현된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⁵⁹⁾

- (32) ㄱ. 과연 그 사람이 범인인가, 아닌가?
ㄴ. 저녁에 축구를 할까, 농구를 할까?

선택의문문은 보문으로 내포될 수도 있다. 이때 만약 상위문 용언이 현재 시제라면 대부분 지속상 및 진행상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이는 선택의문문의 두 가지 선택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 (33) ㄱ. 저는 갈까 말까 {??생각합니다/생각 중이에요/생각하고 있어요}.
ㄴ. 나는 갈까 말까 {??고민해/고민 중이야/고민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사유 인용동사로 사용 가능한 ‘하다’는 선택의문문을 피인용문으로 가질 수 있다. 반면, ‘싶다’의 경우 피인용문 형식으로 선택의문문이 나오면 어색해진다.⁶⁰⁾

58) 이현희(1982)에서는 ‘선정(選定)의문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59) 강영리(2016: 32)에서도 선택의문문이 자문 형식으로 사용될 때에는 청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독백하는 표현이 된다고 한 바 있다.

60) 말뭉치에서 ‘-ㄴ가 … -ㄴ가 싶다’, ‘-ㄴ까 … -ㄴ까 싶다’, ‘-나 … -나’ 싶다 구성 등을 검색한 결과 선택의문문으로 보이는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 서로 두 개 이상의 피인용문이 그대로 사용된 것이었다. 이 경우 피인용문들은 선택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 (34) ㄱ. 정답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하다가/??싶다가} 결국 오른쪽을 골랐어.
- ㄴ. 나도 친구가 없어서 혼자서 이게 좋은 건가 저게 좋은 건가 {하다가/??싶다가} 결국 하나도 지원 안했어.
- ㄷ. 안 그래도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하고 있었어/*싶었어}.
- ㄹ.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가 보면서 이 앱을 지울까 말까 {하고 있어/??싶어}.

이렇듯 ‘하다’는 선택의문문 형식을 피인용문에 허용하지만, ‘싶다’는 허용하지 않는다.⁶¹⁾⁶²⁾

5.2.2. ‘하다’ 구문과 ‘싶다’ 구문의 의미적 차이

엄정호(1990)에서는 간접의문어미 ‘-ㄴ가, -ㄹ까, -나’와 결합하는 ‘하다’ 구문을 “화자의 명제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하다’ 구문을 사유 인용구문의 일종으로 본다. 사유 인

-
- i. 이런 식으로 이산가족이 만나기 시작하면은 얼마가 걸리겠는가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는가 싶어요.
- ii. 이 차이를 아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게 매스 미디어의 역할 아닌가 싶기도 해요.
- 61) 강영리(2016: 69)에서는 ‘-ㄹ까 말까 싶다’가 수용성의 여부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지만, 본고의 말뭉치에서 ‘-ㄹ까 말까 싶다’ 구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 62) 한편, ‘-ㄴ가...-ㄴ가 싶다’의 경우 매우 적은 수로 말뭉치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싶다’에 배경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ㄴ데’나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들의 수용성에 있어서는 본고에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추후 결합되는 연결어미에 따라 선택의문문 형식의 허용 여부가 차이가 나는지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i. 이번 생일에 친구가 다짜고짜 어디를 가자고 했는데 그래서 치킨집인가 식당인가 싶었는데 어떤 파티룸을 하나 대여를 했더라고요.
- ii. 그래서 휴가를 가시는 건가 안 가시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개인 사정이 맞을까, 혹시 그 기사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용의 관점에서 보면 ‘하다’ 구문이 명제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사유를 인용하는 ‘하다’ 구문과 ‘싶다’ 구문의 의미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하다’는 사유뿐 아니라 발화를 인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유 인용에 있어서 이 둘은 품사 상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은 관형사형으로 사용되어 인용표지 혹은 그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추상적으로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연주(2015: 87-88)에서는 많은 구문에서 ‘하다’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인용 구문에서는 ‘하다’의 “에너지 발산”의 의미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하다’의 에너지 발산 의미를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며 설명하였다.

(35) 영이가 순이한테서 돈을 해 왔다.

ㄱ. 영이가 수동적으로 돈을 받는 상황 (X)

ㄴ. 영이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받는 상황 (O)

‘영이가 순이한테서 돈을 해 왔다’라는 문장은 에너지가 발산되는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받는 상황’에서만 적용되지,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는 ‘수동적으로 돈을 받는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하다’의 ‘에너지 발산’ 의미는 심리 용언과 결합하는 ‘-어 하다’ 구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리 용언은 주로 화자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타인에게 지각되기 어렵다. 그러나 ‘-어 하다’가 결합되면, 대체로 경험주가 느끼는 내면의 감정 상태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인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Kim 1990: 74). 유사하게 김세중(1994: 83)에서도 ‘어 하다’에서 ‘하다’의 의미를 ‘타인에 의해 인지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36) ㄱ. 나는 소식이 궁금하다.

ㄴ. 영희는 소식을 궁금해한다. (이상 김세중 1994: 80)

그러나 ‘싶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산된다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사유를 담고 있는 내면의 상태를 나타낸다. ‘싶다’ 구문의 피인용문에 선택의문문 형식이 허용되지 않는 점도 다른 의문문과 달리 선택의문문의 경우, 주어가 선택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행위가 부각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6.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싶다’ 구문의 인용구문적 특징과 ‘싶다’의 어휘·의미적 특징을 두루 살펴보았다. ‘싶다’는 한국어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형용사이며, 이에 대한 통사·의미적 특징에 관한 연구 또한 심도 깊게 다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싶다’를 다시 다루는 이유는 해당 구문을 인용구문으로 보는 논의는 많지 않았고, 인용구문 논의에서도 ‘싶다’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싶다’ 구문을 인용구문으로 파악하며, 이들의 인용구문적 특징을 밝히고, 인용형용사로서 ‘싶다’의 어휘·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통사·의미적 특징을 보이는 ‘보다’ 구문과 ‘하다’ 구문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2장에서는 ‘싶다’ 구문을 보조용언 구문과 양태용언 구문과 구분하고, 사유 인용구문에 대한 기본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2.1절에서는 보조용언 구문과의 통사적 차이를, 2.2절에서는 양태용언 구문과의 통사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싶다’를 보조용언이나 양태용언으로 취급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2.3절에서는 인용구문의 전반적인 개념을 다루고 발화 인용구문과 다른 사유 인용구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유 인용구문은 피인용문이 청자를 상대하여 발화되지 않기 때문에, 원청자가 여격어로 실현되지 못하고, 독백문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선어말어미 ‘-더-’가 사용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3장에서는 ‘싶다’ 구문의 인용구문적 특징을 직접인용 구문, 간접인용 구문, 제3의 인용구문적 특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싶다’ 구문은 피인용문에 다양한 문말어미를 사용하고, 화시소가 유지되며, 조각문이나 표현소를 사용되며, 역양과 휴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인용 구문적인 특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시소가 전이되며, 간접인용어미 ‘-다’가 사용된다는 점은 간접인용 구문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용표지 ‘∅’를 사용한다는 점은 다른 포괄 인용용언과 공유하는 공통점으로 이를 제3의 인용구문적 특징으로 분류하였다.

4장에서는 인용형용사 ‘싶다’의 어휘·의미적 특징과 인용표지 상당 기능을 살펴보았다. ‘싶다’는 포괄 인용형용사이며, 항상 피인용문을 요구한다. 또한 인지 단계 중 사유 단계의 피인용문을 인용하는 형용사로서 인지, 판단, 믿음 단계에 비해 그 확실성의 정도가 낮다. ‘싶다’ 구문은 관형사절로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이 경우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하여 인용표지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확실성이 높은 보문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함이 관찰되었다.

5장에서는 SEA 구문으로 다루어진 ‘보다’ 구문과 ‘하다’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싶다’ 구문과 비교하였다. 먼저, 다양한 통사적 특징으로 인해 ‘보다’ 구문은 [추측]과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화된 양태 구문으로 볼 수 있었다. ‘하다’ 구문은 ‘싶다’ 구문처럼 사유 인용구문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품사 상의 차이, 현재 시제의 제약, 피인용문에 선택의문문 허용 등에 차이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였다.

본고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싶다’ 구문의 인용구문적 성격을 상세하게 밝혔다. 인용구문의 차원에서 살펴본 ‘싶다’ 구문은 직접인용 구문만을 형성하지 않으며, 간접인용 구문적 성격, 제3의 인용구문적 성격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사유의 인용에 있어서만큼은, ‘싶다’를 ‘하다’에 준하는 포괄 인용용언으로 다루어야 함을 보였다. 둘째, 사유 인용구문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그동안 사유 인용은 발화 인용의 비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사유 인용구문은 빈번하게 사용된다. 사유는 어떠한 사태의 원인이나 결과, 배경 등이 될 수 있으며, 언어 사용자는 사유 인용구문을 통하여 이를 표현할 수 있다. ‘싶다’는 가장 포괄적인 인용용언 중 하나로 화자가 자신의 사유를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편, 본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싶다’를 제외한 사유 인용구문 전반의 특징을 살피지 못하였다. 사유 인용구문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기에, ‘싶다’ 구문의 인용구문적 특징 중에는 발화 인용구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도 존재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싶다’ 구문의 인용구문적 특징은 추후 사유 인용구문 전반의 특징이 수립된 후에 재조정될 수

있음을 밝힌다. 둘째, ‘싶다’와 ‘하다’의 의미 차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특히, ‘싶다’는 ‘하다’와 달리 피인용문으로 선택의문문을 가지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셋째, 인상적으로 ‘싶다’의 피인용문 문말어미이나 문장 형식은 ‘싶다’와 결합하는 어말어미에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 듯하나, 이 현상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였다. 예컨대 설명의문문은 ‘싶다’가 종결어미와 결합했을 때보다 연결어미와 결합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추후에 ‘싶다’의 피인용문과 ‘싶다’에 결합하는 어말어미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상의 한계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 고 문 헌

- 강규영(2022), 한국어 수사어문의 두 유형에 대하여, 《국어학》 103, 국어학회, 473-505.
- 강영리(2016), 《‘-르까’의 의향 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권재일(1977), 《현대국어의 동사구내포문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권재일(1998), 한국어 인용 구문 유형의 변화와 인용 표지의 생성, 《언어학》 22, 언어학회, 59-79.
- 권재일(2004), 《구어 한국어의 의향법 실현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구종남(2015), 《국어의 담화표지》, 경진출판.
- 김건희(2008), ‘싫다’ 구문에 대하여, 《한글》 280, 한글학회, 129-164.
- 김기혁(1987), 형태·통어적 구성과 중간 범주, 《동방학지》 7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33-258.
- 김상대(1977), 한국어 화법 연구-그 보문자와 활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31, 한국어교육학회, 1-21.
- 김세중(1994), 《국어 심리술어의 어휘의미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송희(2014), 《한국어의 비전형적 부정 구성 연구: 상위언어적 부정 및 부정 아닌 부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2006), 타동사 ‘*식다’를 찾아서, 《어문연구》 3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7-156.
- 김영태(1997), 《현대국어 보조용언 연구》, 문창사.
- 김정아(1985), 15세기 국어의 ‘-ㄴ가’ 의문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4, 국어국문학회, 281-301.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김흥수(1983), ‘싫다’의 통사·의미적 특성, 《관악어문연구》 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57-190.
- 김흥수(1989),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탑출판사.
- 남기심(1971), 인용문의 구조와 성격, 《동방학지》 12, 연세대학교 국학연

- 구원, 223-233.
- 남기심(1973), 《국어완형보문법연구》, 탑출판사.
- 노은주(2018), 사적 술어의 인칭 제약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언어》 43 (1), 한국언어학회, 21-42.
- 류시종(1995), 《한국어 보조용언 범주 연구:원형이론적 접근》,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명정희(2018), 인식양태 구성들의 비교 연구,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1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99-112.
- 목정수(2011), 한국어 구어 문법의 정립-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을 지향하며-,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57-98.
- 문숙영(2012ㄱ),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계절의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5, 개신어문학회, 31-68.
- 문숙영(2012ㄴ), 인용과 화시소의 전이, 《국어학》 65, 국어학회, 219-249.
- 문숙영(2015), 한국어 탈종속화(Insubordination)의 한 종류, 《한국어학》 69, 한국어학회, 1-39.
- 문숙영(2018), 자유관접화법의 지표와 인용문의 해석적 사용, 《한국어 의미학》, 한국어 의미학회, 101-132.
- 박나리(2004), 한국어 교육문법에서의 종결어미 기술에 대한 한 제안: ‘-어’, ‘-네’, ‘-지’, ‘-다’, ‘-구나’, ‘-단다’의 담화 화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6, 이중언어학회, 91-116.
- 박재연(1999), “종결어미와 보조용언의 통합 구문”에 대한 재검토, 《관악어문연구》 24, 서울대 국어국문학회, 155-182.
- 박재연(2005),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41 (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01-118.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박재연(2013), 한국어의 인식론적 범주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 66, 국어학회, 79-107.
- 박재연(2012), 인용 동사의 의미론적 분류 방법,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205-229.

- 박재연(2014), 한국어 종결어미 ‘-구나’의 의미론, 《한국어 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219-245.
- 박진호(1998), 보조용언,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 박진호(2011), 한국어(韓國語)에서 증거성(證據性)이나 의외성(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 연구소, 1-25.
- 박미은(2021), 인용명사의 유형과 기능, 《한국어 의미학》 72, 한국어의미학회, 89-122.
- 박창영(2017), 종결어미 뒤에 결합한 ‘싶다’의 기능에 대한 구문 기반 연구, 《한글》 318, 한글학회, 119-146.
- 박한기(2009), ‘싶-’의 통사구조와 의미, 《언어》 34(1), 한국언어학회, 53-72.
- 박혜진(2020), ‘-을까 보-’ 구성의 통사와 의미, 《한국어 의미학》 67, 한국어 의미학회, 25-51.
- 변정민(2001), 《국어 인지 동사 연구: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변정민(2008), 의문형 어미와 통합하는 보조용언 연구: ‘보-’와 ‘싶-’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223-249.
- 서정수(1977), “더”는 회상의 기능을 지니는가, 《언어》 2(1), 한국언어학회, 231-265.
- 서정수(1990), 《국어 문법의 연구2》, 한국문화사.
- 손세모돌(1995), “-고 싶다”의 의미 정립 과정, 《국어학》 26, 국어학회, 147-169.
-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손세모돌(1999), ‘-잖-’의 의미, 전제, 함축, 《국어학》 33, 국어학회, 213-240.
- 신서인(2014),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한 문장부사 하위분류, 《한국어 의미학》 44, 한국어 의미학회, 89-118.
- 신선경(1986), 《인용 구문의 구조와 유형분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지연(1998), 《국어 지시용언 연구》, 국어학총서 28, 태학사.
- 신지연(2001), 감탄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 의미학회, 241-259.
- 안경화(1995), 《한국어 인용 구문의 연구: 유형과 융합도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안주호(2005), ‘싶다’ 구문의 통시적 고찰, 《어문학》 90, 한국어문학회, 73-96.
- 안주호(2006), 현대국어 ‘싶다’ 구문의 문법적 특징과 형성과정, 《한국어 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371-391.
- 양명희(1998),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국어학총서 33, 태학사.
- 엄소영·이선웅(2022), 양태 용언 ‘싶다, 보다, 하다’의 한국어 교육 내용 구축-종결어미 결합형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70, 우리말학회, 63-95.
- 엄정호(1990), 《종결어미와 보조동사의 통합구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엄정호(2005), 《국어의 보문과 보문자》, 태학사.
- 오승신(1995), 《국어의 간투사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유동석(1981), ‘-더-’의 의미에 대한 관견, 《관악어문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5-226.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윤정원(2011),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기갑(2006), 한국어의 양태 표현,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67-83.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이상복(1973), 한국어의 인용문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31-154.
-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국어연구》 133,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이영경(2005), ‘싶다’ 구문의 史的 변천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 35, 서

- 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5.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정민(2016), 심리술어와 1인칭: 증거성의 문제, 《언어》 41(4), 한국언어학회, 679-713.
- 이정택(1988), ‘-고’와 공존하는 도움풀이씨 연구, 《한글》 200, 한글학회, 165-192.
- 이지연(2020), 이른바 SEA ‘싫다’ 구문의 결합 양상과 의미, 《언어사실과 관점》 5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17-349.
- 이지영(2017), ‘-기를’ 인용구문의 발달과 인용구문 유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우리말연구》 50, 우리말학회, 59-83.
- 이창덕(1994), 국어 발화의 담화상 기능과 간접인용 구문, 《텍스트언어학》 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25-257.
- 이필영(1995),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이현희(1982), 《국어의 의문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현희(1986), 中世國語 內的 話法の 性格,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출판부, 191-228.
- 이현희(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신구문화사.
-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국어학회, 323-359.
- 임동훈(2021), 부차 개념의 통사적 실현과 보조동사 구문, 《국어학》 97, 국어학회, 59-88.
- 임흥빈(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331-384.
- 임흥빈(1993), 다시 {-더-}를 찾아서, 《국어학》 23, 국어학회. [임흥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I, II, III》, 태학사에 실림, 271-238.]
- 임흥빈(2018), 《한국어의 재구조화 2》,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전영철(1990), 한국어 인용동사에 관하여, 《언어연구》 1, 서울대학교 언어

- 연구회, 41-54.
- 전후민(2015), 혼잣말 종결어미 연구, 《한민족어문학》 70, 한민족어문학회, 5-34.
- 정연주(2015), 《‘하다’의 기능에 대한 구문 기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정연주(2021), 채숙희,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2013)에 대한 검토, 《형태론》 23(2), 형태론학회, 150-170.
- 정원수(1988), 부정형태 ‘잡(잡)’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283-294.
- 정혜선(2010), ‘싶다’ 구문의 역사적 변화, 《어문연구》 38(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69-191.
- 차현실(1984), ‘싶다’의 의미와 통사구조, 《언어》 9(2), 한국언어학회, 305-326.
- 천성호(2020), 한국어 ‘싶다’의 범주 및 특성, 《언어연구》 36(2), 한국현대언어학회, 163-181.
-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최성호(2003), 통시적 공시성에 기반하는 자연언어 연구방법론: 한국어 교착소 ‘잡’의 역사적 발달을 중심으로, 《인문학지》 26, 충북대학교인문학연구소, 315-342.
- 채숙희(2013),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태학사.
- 최현배(1937/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동완(1996), 《國語의 時制 研究》, 태학사.
- 한영희(2019), 인용범사의 범위와 유형, 《텍스트언어학》 4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25-259.
- 한송화(1996), 발화보문동사에 대한 연구, 남기심(편), 《국어문법의 탐구 III》, 태학사, 33-62.
- 허 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호광수(2003), 《국어 보조 용언 구성 연구》, 역락.

- Aikhenvald. Y.(2004),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ikhenvald. Y.(2008), Semi-direct speech: Manambu and beyond, *Language Sciences* 30(4), Amsterdam: Elsevier, 383-422.
- Banfield, A.(1982), *Unspeakable Sentences. Narra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Language of Fiction*,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 Bloomfield, L.(1933),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Brown, P. & Levinson, S. C.(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bee, J.(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omrie, B. (1985),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ulmas, F. (1986), Direct and Indirect speech: general problems and problem of Japanese, *Journal of Pragmatics*, North-Holland: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41-63.
- Davidson, D.(1979/2001),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2nd ed.), Oxford: Clarendon, 93-108.
- Evans, N.(2013), Some problems in the typology of quotation: A canonical approach. In Dunstan Brown, Marina Chumakina & Greville G. Corbett (eds.), *Canonical morphology and synta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6-98.
- Frank, J.(1990), You Call That a Rhetorical Question?, *Journal of Pragmatics* 14, Amsterdam: Elsevier, 723-738.
- Givón, T.(2001 \neg), *Syntax* 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Givón, T.(2001 \perp), *Syntax* 2,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Güldemann, T.(2008), *Quotative indexes in African languages: A synchronic and diachronic survey*, Berlin: Mouton de Gruyter.
- Haiman, J.(1985), *Natural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iday, M. A. K.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Edward Arnold.
- Jäger, A.(2007), Coding Strategies of Indirect Reported Speech in Typological Perspective,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 1-20.
-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Young-joo(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Lyons, J.(1977),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Gregor, W.(2007), *Verb classification in Australian languages*, Mouton de Gruyter, Berlin and New York.
- McGregor, W.(2021), Thought complements in Australian languages, *Language Sciences* 86, Amsterdam: Elsevier, 2-18.
- Michael, L.(2010), Rethinking quotatives, reported speech, and Utterance responsibility: Implications of Nanti self-quotation, In *Paper Presentation at 2010 annual LSA meeting*, Baltimore, Maryland.
-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tee, B. H.(1973), The syntax and semantics of quotation, In Kiparsky P. and S. Anderson(eds.), *A Festschrift for Morris*

- Hall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410-418.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 London: Longman.
- Searle, J.(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ronck. S. & Casartelli, D.(2021), In a Manner of Speaking: How reported speech may have shaped grammar, *Frontiers in Communication* 6, Frontiers Media S.A, 624486.
- Spronck. S & Nikitina, T. (2019), Reported speech forms a dedicated syntactic domain: typological arguments and observations, *Linguistic Typology* 23(1), Berlin: De Gruyter, 119-159.
- Vandelanotte, L.(2009), *Speech and thought representation in English: A cognitive-functional approach*, Berlin/New York: De Gruyter Mouton.
- Yang, In-Seok(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사전>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2001),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말뭉치>

-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 일상 대화 말뭉치 2020, 일상대화 말뭉치 2021, 온라인 게시 자료 말뭉치 2022, <https://kli.korean.go.kr/>, 2024.02.05.

Abstract

A Study on ‘Sipta’ Construction Representing Thought

Cho, Younj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sipta’ in Korean as a quotative adjective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quotative constructions formed by ‘sipta’. In previous discussions, ‘sipta’ has generally been treated as an auxiliary or modal adjective. However, ‘sipta’ can have a quoted clause in any form of sentence representing thought, and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the ‘sipta’ construction are more suited to quotative construction. Therefore, in this paper, the quotative use of ‘sipta’ for representing thought is establish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construction are examined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Chapter 2, a basic discussion of the ‘sipta’ construction as a quotative construction is conducted by comparing it with auxiliary and modal verb constructions. Through this comparison, it was possible to discern the syntactic differences

between the 'sipta' construction and auxiliary/modal verb constructions. Furthermore, unlike represented speech, where a quoted clause is addressed, represented thought involves the use of a quoted clause without addressing the hearer, and it was confirmed that 'sipta' also functions in this manner.

In Chapter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pta' construction are examined in terms of direct quotative features, indirect quotative features, and features of a third type of quotation. Direct quotative features include the ability to use various sentence-final endings, maintain deixis, use fragmentary sentences and expressives, and use intonation and pauses. Indirect quotative features include the deixis shift and the use of the indirect quotative ending '-ta'. The third type of quotative feature is the inability to use quotation markers, which indicates that 'sipta' functions as a general quotative adjective.

Chapter 4 examines the lexic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quotative adjective 'sipta' and its role as a quotation marker. 'sipta' is an adjective that always requires a quoted clause. It carries the basic meaning of thoughts,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stage of cognition, and carries the meaning of uncertainty inherent in thoughts. Additionally, when combined with the adjectival ending '-eun', 'sipta' can sometimes play a role similar to a quotation marker in specific contexts.

Chapter 5 compares the 'sipta' construction with the 'boda' and 'hada' constructions. Unlike the 'sipta' construction, which can represent the entire range of thoughts, the 'boda' construction is a grammaticalized modality marker indicating [speculation] and [intention]. The 'hada' construction can function as a quotative thought construction similar to the 'sipta' construction, but

unlike 'sipta', 'hada' is a verb in terms of part of speech, and when appearing in the present tense, it has constraints on sentence-final endings in quoted clauses and allows for alternative question sentences in quoted clauses.

In Chapter 6, the above discussions are summarized,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examined.

keywords : 'sipta', sipta construction, represented speech or thought, represented thought, thought construction, quotative adjective, modality

Student Number : 2022-23968